

E 02-2012-03 | 2012.10 |

제14권 제3호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 목 차

## 1 포커스

- ▶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 3

## 2 2012년 특별기획

- ▶ 남북강원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태와 과제 ..... 23

##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37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61

##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0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1
  - 2. 대북지원동향 ..... 114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17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19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19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128
  - 3. 북중 교역 동향 ..... 140

##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유기농업의 정보화의 기본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 149
- ▶ 간석지건설사업은 국토를 넓히고 후대에게 더욱 살기좋은 조국강토를 물려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 ..... 151



• KREI 북한농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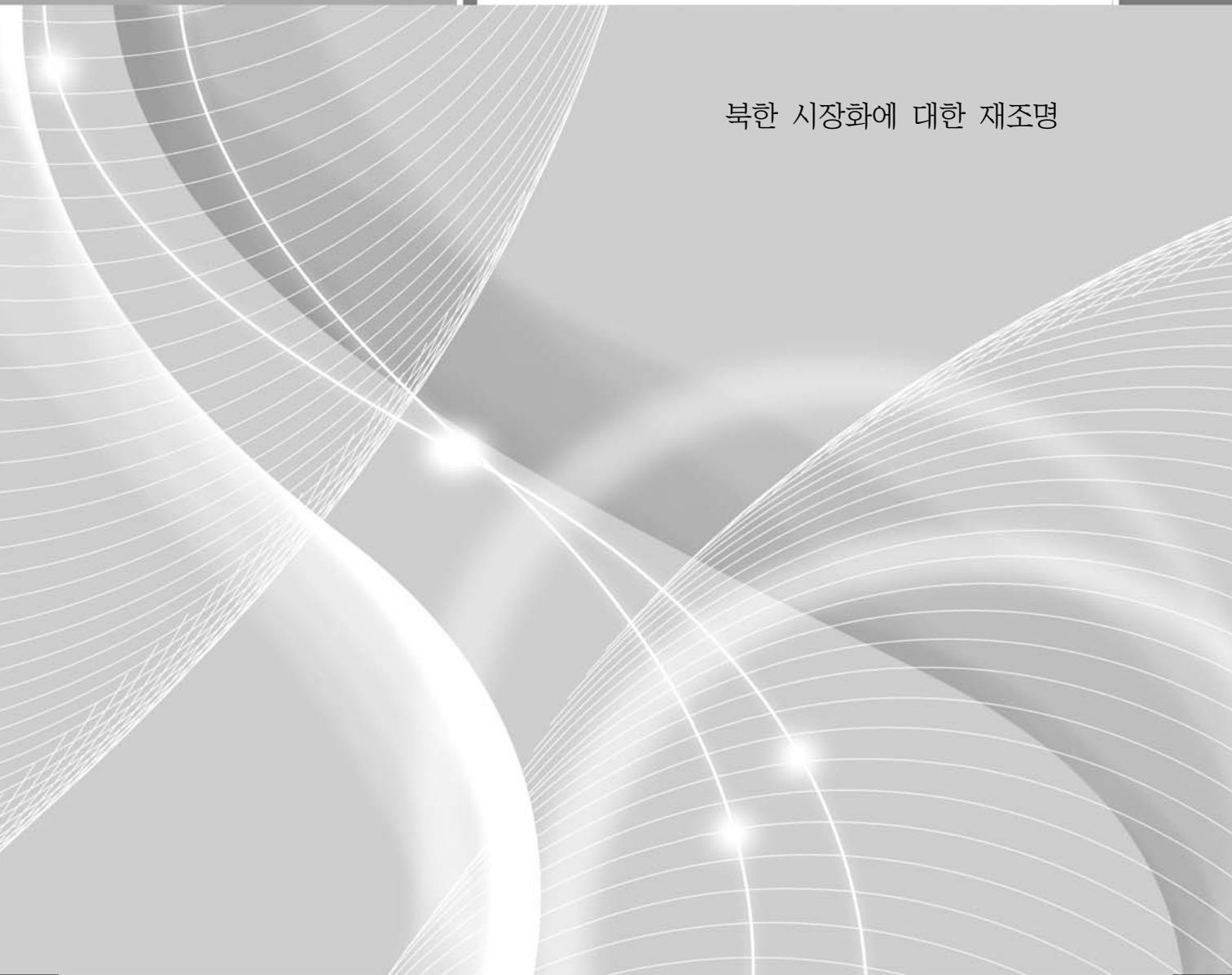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 포커스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양 문 수<sup>1)</sup>

## 1. 머리말

지난 4월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개혁·개방'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북한정부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내부에서 공표한 이른바 ‘6·28 방침’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6·28 방침’의 본격적인 시행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 조치의 시행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만 조치의 착수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지난 9월 이례적으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혁 관련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꽤 있었으나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외부의 관찰자로서는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북한정부가 새로운 경제개혁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시장화’를 진전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sup>2)</sup>. 특히 공식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다시 한번 메워주는 것, 즉 현실의 세계에서 불법적,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관련 활동을 일정 정도 합법화, 공식화시켜 주는 것 혹은 플러스 알파 수준이다. 어차피 전면적인 경제개혁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하게 된다. 북한에서 시

1)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2) KDI의 이석 박사는 올해의 북한경제를 ‘총력 달러 확보 체제’로 파악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석,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7월호.

장화는 어떤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 가. 개념적 틀

시장화(marketization)란 다양한 차원인 동시에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sup>3)</sup>. 계획화(planning)와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화를 상정한다면, 이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장화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marketplace)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적·기능적으로는 지역시장과 외부시장, 전국적 시장, 세계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장은 또한 거래대상에 따라 크게 보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 자금, 노동력 등과 같은 투입물을 국가계획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피공급, 할당)하고 생산물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상업기관에 인도(공급)한다.

따라서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시장이 발생, 확대되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단위인 공장·기업소 및 농장이 원자재, 자금, 노동력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분을 시장을 통해 수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커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시장은 가격기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3) 우리는 대개 시장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과 같이 장소, 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장은 장소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시스템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이다. 그 요소들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공급자, 수요자, 관습 또는 법 등이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중요성을 가진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혹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시장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은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여부 및 그 수준은 시장화의 진전 여부 및 그 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 나. 1990년대 경제위기 및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 하던 소규모 농민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암시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sup>4)</sup>. 국영 상업망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비품 공급부족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식량 배급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급기야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에 국가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함에 따라 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른바 ‘장사’로 불리는 상행위를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활동에 참여했다. 즉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주민들은 △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의류, 식기, 가구 등의 자산, △ 텃밭 등 합법적 경작지, 땀밭(소토지) 등 불법적 경작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 공장·농장의 공산품, 원자재, 식량 등을 절취·유용한 것, △ 합법적 및 불법적 수입 물자, △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를 절취·유용한 것 등을 시장에 공급(판매)했다.

4) 농민시장은 원래 합법적으로 존재한 소규모 소비재시장이다. 역사적 뿌리는 상당히 깊다. 북한에서는 1958년부터 농민들이 텃밭이라 불리는 소규모 사적 경작지 등지에서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 간에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농민시장이라 하여 10일에 한 번씩 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농산물이라 해도 쌀·옥수수 등 식량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농민시장에서는 쌀·옥수수 등의 식량과 공산품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농민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3년부터 암시장으로 바뀐 농민시장을 합법화했는데 이를 한국에서는 종합시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문헌들은 이를 지역시장이라 칭하고 있다.

표 1. 종합시장 허용 이전 농민시장(암시장)에 대한 상품 공급 경로

구 분	공급 물품의 취득 과정	물품취득 과정의 합법 여부	농민시장 유통의 합법 여부
개인 보유 자산	개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의류, 식기, 가구 등 자산	합법	불법
개인 차원의 생산물	뒷밭 생산 농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농축산물	합법	합법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	합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불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	불법	불법
기업(농장 포함) 차원의 생산물	공식부문 생산 식량, 공산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공식부문 절취·유출 식량, 생필품, 원자재	불법(개인 입장)	불법
중국 등 제3국 수입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합법(기업 입장)	불법
	개인·기관에 의한 밀수품	불법	불법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출 물자	불법	불법

자료: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과주: 한울, 2010).

처음에는 시장 참여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주변에 장사(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신규로 시장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농장도 공장·농장 차원 혹은 소속 구성원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다.

결국 농민시장은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먼저 거래 품목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하게 되었는데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용품, 고가의 내구소비재, 더욱이 일부 생산재까지 거래되었다. 공간적으로도 국가가 허가한 농민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가나 주택가 부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장의 개설시기도 바뀌었는데 10일 단위로 열려야 할 시장이 매일 열리게 되었다. 또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전문적인 장사꾼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정부가 취한 태도는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가까웠다. 북한정부는 암시장을, 국가배급제의 마비로 인한 주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암시장의 확산을 대체로 묵인해왔던 것이다.

#### 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출범 이후 북한당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혼란, 특히 암시장의 창궐에 따른 경제 사회적 질서의 동요를 수습하고 체제 및 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기조로서 이른바 실리주의,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웠고, 대외적으로는 외부세계와의 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등장했다.

7·1 조치는 여러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부분적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표2 참조). 즉 기존에 진행되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공식 제도 내에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달리 보면 시장화의 촉진조치이다.

먼저 2002년에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번 수입 지표’를 신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해 계획의 생산과 계획의 유통을 허용했다.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용인한 것이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곡물 수매가의 대폭적인 인상, 농장의 농산물 자체 처분권 등 경영상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규 도입했다. 최초로 생산재시장을 공식 허용한 것이다. 이는 공장·기업소 간 과부족 상태의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도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를 이룬다.

2003년 3월부터는 종합시장을 신규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업제품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종전의 암시장을 합법화해 주는 형태로 소비재시장을 공식 허용한 것이다.

시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에 상품공급자와 상품공급량이 증가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장 및 농장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다.

표 2. 7·1 조치 및 후속·관련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7·1 조치	후속·관련 조치
가격·임금·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25배), 임금(18배), 환율(70배) 인상</li> <li>- 소비재 무상 급부제 폐지</li> <li>- 각종 보조금 축소,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 등에 외화환전소 설치(2003)</li> </ul>
재정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수입금 폐지, 국가기업이득금 신설</li> <li>- 토지사용료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의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신설(2003)</li> <li>-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li> <li>- 징세기관인 징금소 설치(2003)</li> <li>-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확대개편 (2006)</li> <li>- 중앙은행법 개정(2004)</li> <li>- 상업은행법 제정(2006)</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수매가 인상(50배)을 통해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li> <li>- 국가수매량 축소</li> <li>- 농장의 경영자율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 시범 실시(2004)</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수입체계에 의한 실적 평가</li> <li>- 독립채산제 본격 실시</li> <li>- 지배인 권한 강화</li> <li>-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li> <li>- 노동 인센티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기업경영자율성 대폭 확대한 기업개혁조치 실시(2004)</li> </ul>
상업·유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 개설(2003)</li> <li>- 일부 국영상점을 수매상점으로 전환(2003)</li> <li>- 사실상 개인의 식당, 서비스업 허용(2003)</li> </ul>
대외경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의 분권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2002.9)</li> <li>-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2002.10)</li> <li>- 개성공업지구 지정(2002.11)</li> </ul>

자료: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서울: 통일연구원, 2005)을 토대로 작성

북한의 경우, 시장화의 진전에 무역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회사는 과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기관·기업소 등을 위한, 일종의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을 수행했고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은 음성적(불법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종합시장을 허용하고, 국영상점의 시장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제 무역회사들은 공식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상품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즉 합법적인 생산재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공장 및 농장은 시장을 통해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장 및 농장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

다. 이에 따라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본격적인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상인계층의 형성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번 뒤, 즉 자본을 축적해 이른바 돈주(錢主)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돈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 특히 무역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상인계층의 형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층의 분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이다.

시장의 합법화로 시장이 확대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물론 북한에서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이며 동시에 사적 금융이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고 또 하나는 공장·농장과 개인 사이의 금융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금융 시장은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면서 각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금융시장 참여 확대가 개인, 기업들의 소비재 및 생산재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소비재 시장 및 생산재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임노동관계도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노동자의 대척점에는 이른바 돈주가 존재한다. 상업부문에서 상점 주인과 상점 노동자, 수산업에서 선박 소유주와 노동자, 농업 부문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소유자와 소작인 사이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수공업에서도 이른바 가공주와 노동자 사이에 임노동관계가 등장했다. 이러한 임노동관계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발생하게 되면 돈주들의 시장 참여 확대, 이에 따라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이른바 4대 시장이 형성되고, 이들 시장이 서로 연계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서로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 라.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전환

북한에서는 2005년부터 개혁적 정책기조가 후퇴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2007년부터 시장에 대한 정책이 촉진에서 억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는 7·1 조치 등 경제개혁을 내각이 주도하고, 이러한 개혁이 지속됨에 따라 당의 반발이 갈수록 커졌으며, 아울러 개혁의 지속에 따라 기존질서의 동요, 배금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 등 이른바 개혁의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에 대한 단속, 통제는 다방면에 걸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선 종합시장에서의 매매상인을 대상으로 상행위(장사) 연령에 대한 제한, 상행위 시간에 대한 제한, 상행위 품목에 대한 제한, 상행위 장소에 대한 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종합시장 이외의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예컨대 서비스업 개인투자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무역회사의 구조조정 조치도 단행되었다. 아울러 각종 검열을 통해 돈주와 당정간부에 대한 처벌도 동반되었다.

나아가 2009년부터는 종합시장의 물리적 폐쇄, 즉 농민시장으로의 환원도 시도되었다.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2009년 1월부터 전국의 시장을 농민시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1월 말에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장 억제 정책을 시도했다. 즉 신규 화폐의 교환 및 교환의 한도 설정을 통해 대상인, 중간상인 등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현금을 환수해 시장경제활동의 재정적 기반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2010년 1월에는 종합시장을 종전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장억제정책인 화폐개혁조치도 시장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이번에는 시중의 화폐유통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의 상품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환율 및 물가 폭등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물가 폭등, 상품 공급 위축 등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견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북한정부는 2월 초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었다. 나아가 북한정부는 이른바 5·26 지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철회했다. 이렇듯 북한정부는 2007년부터

5)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12, pp.190-215 참조.

여러 차례에 걸쳐, 그리고 때로는 시장 폐쇄라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하면서 시장 억제 정책을 펴보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마. 시장에 대한 허용 정책으로 재전환

북한정부는 2010년 2월초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나아가 5월에는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적어도 2년 반 동안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각종 단속 및 통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폭풍군단 검열조’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국경지역에 대한 특별 검열을 실시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 ▲마약 복용 및 판매 ▲한국 영화 DVD 시청 ▲중국과 밀무역 ▲탈북 주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9월부터는 중앙당 조직부가 직할하는 이른바 ‘8·28 상무조’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올해 3월 25일까지 100일간의 애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동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게다가 국경지역의 경우, 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통제가 지속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초까지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 국가보위부산하 전파단속국과 해당지역 보위부가 협동으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다만 이러한 단속조치들은 직접적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사회주의 척결’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속의 포괄범위와 수준이 2007년부터 본격 실시된, 시장에 대한 전면적 단속, 통제에 비하면 이른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늘 존재했던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는 시장의 확산에 약간의 제어 효과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장 억제를 목적으로 한 한 조치들도 아니었다.

다만 200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허용이라는 정책적 기조가 계속 유지되었지만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 또한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들은 2002년의 7·1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 3. 북한 시장화의 특징

#### 가. 국민경제의 이중경제구조화 전략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요소의 하나는 국민경제에 대한 일종의 이중구조화 전략이다. 기본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이고, 한편으로는 특권경제(당경제, 군경제)와 일반경제(내각경제, 주민경제)의 이중구조이며, 또 한편으로는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과 경공업의 이중구조이다. 다만 이중경제구조는 개념적 차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중경제구조라 해도 두 부문이 분리되어 있지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얽혀 있으며, 더욱이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상당 정도 존재한다. 특히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그러하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경제라는 범주가 사실상 실종되었다. 거시경제의 재생산구조, 순환구조는 파괴되면서 국민경제는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절화·파편화되었다. 국민경제는 크게 보아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으로 분화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당경제, 군경제, 내각경제, 주민경제(비공식 경제) 등 4개 부문으로 분화되었다.

북한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 이중경제구조를 공식 제도의 틀로 편입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대한 이중구조 전략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즉, 북한정부는 우선 순위체계에 입각해서 자원배분을 재조정하되 국민경제 전체, 경제의 모든 부문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기본적으로 당경제, 군경제, 일부 내각경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반면 주민경제와 일부 내각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계획경제의 영역 내에 묶어두지만, 후자는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위기적 상황에서 북한정부가 선택한 생존전략이다.

재정수입의 격감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든 부문에 대해 균등하게 예산을 감축·배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균등하게 감축·배분하는 것이다. 북한이 택한 길은 후자였는데 북한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이른바 우선순위체계에 입각해 자원배분시스템을 재편했다. 물론 이러한 우선순위체제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핵심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계획경제의 틀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관리하는 한편 여타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기업 및 산업과, 국가가 방임하는 기업 및 산업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전자는 군수산업, 중공업부문으로 대표되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후자는 경공업부문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소비재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방임 혹은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장악력, 통제력을 상당 정도 상실했는데 이러한 현실을 공식적으로 추인했다.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과 공장·농장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재와 자금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지방과 공장·농장이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이며, 시장경제적 질서에 의해 생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7·1 조치는 이러한 이중구조 전략의 공식화라는 성격을 지닌다. 7·1 조치 이전에도 이러한 이중구조는 형성되어 있기는 했으나 시장이 비공식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중구조 전략은 공식화된 것이 아니었다.

## 나. 협동농장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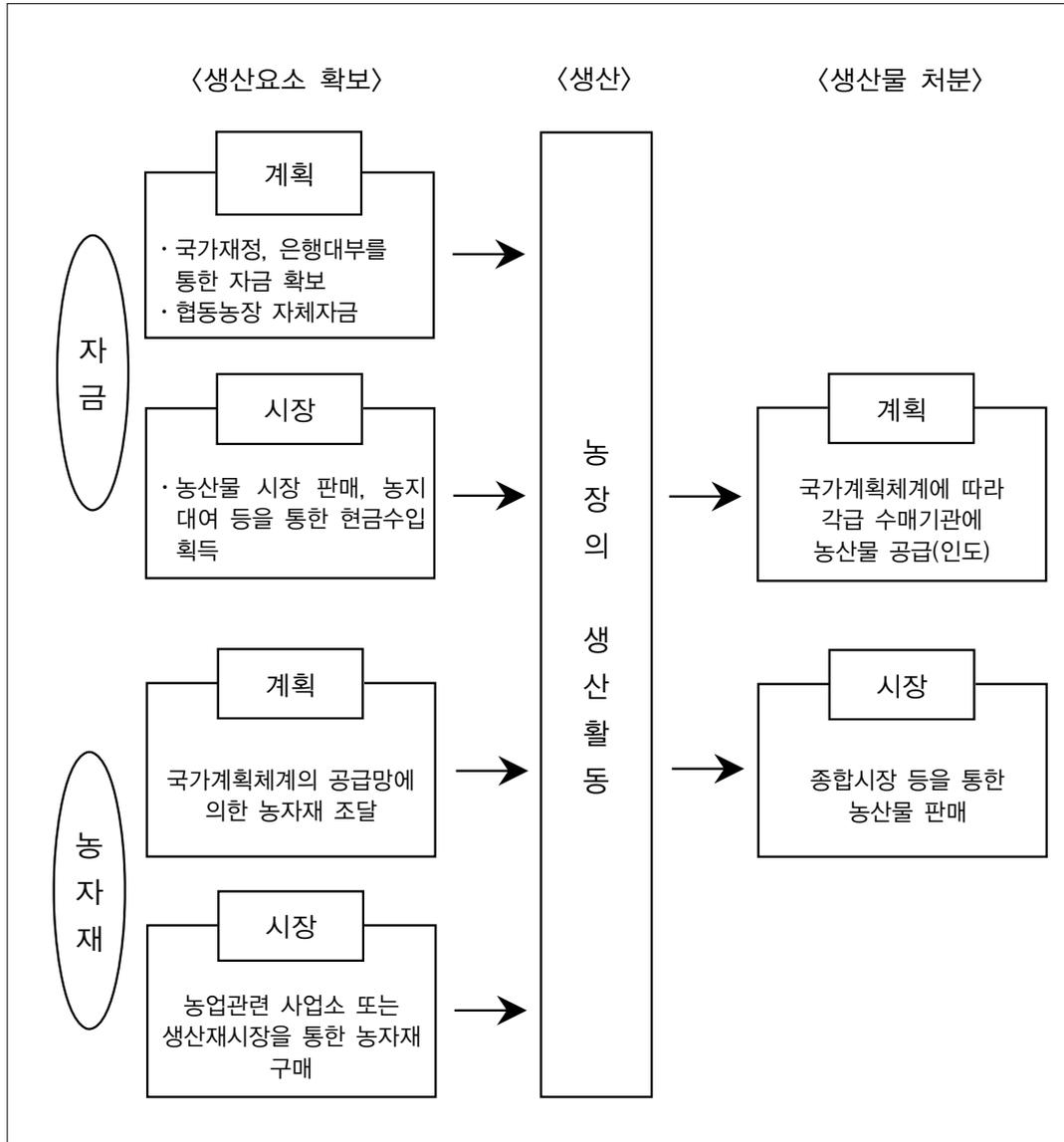
협동농장은 국민경제에서 생산의 주체인데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농장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요소 확보 및 생산물 처분 과정에서 계획과 시장은 공존한다. 농장은 계획 부문에서, 즉 국가 재정,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협동농장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시장 부문에서, 즉 농산물의 시장판매, 농지 대여 등을 통해 현금수입을 획득할 수도 있다. 협동농장은 또한 계획 부문에서, 즉 국가계획체계의 공급망에 의해 농자재를 조달할 수도 있고, 시장 부문에서, 즉 농업관련 사업소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혹은 생산재시장(물자교류시장)을 통해 농자재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자금과 농자재를 가지고 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계획 부문에서, 즉 국가계획체계에 따라 각급 국가수매기관에 인도할 수도 있고, 시장 부문에서, 즉 종합시장 등을 통해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댓가를 받고 기관·기업소에게 농지를 대여할 수도 있다<sup>6)</sup>. 물론 개별 농장에 따라 생산요소 확보 및 생산물 처

6) 협동농장은 종자관리소, 관개관리소, 배합사료공장 등 군(郡) 농업관련 사업소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식량, 채소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농지를 농사철 6개월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실비, 자재를 수취한다. 또한 협동농장은 인근 공장·기업소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식량, 채소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농지를 농사철 6개월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농자재나 현금을 수취한다. 김영훈 외, 『북한 농업·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p.67-68 참조.

분 과정에서 계획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다. 국가적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높은 농장은 계획의 비중이 높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농장은 시장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그림 1. 협동농장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 다. 계획과 시장의 관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양자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또 중첩되어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자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무엇보다도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상호 대립적이다. 보완과 대립(혹은 대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우선 시장경제는 그 물적 토대의 상당 부분을 계획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계획경제 내에 존재하는 각종 설비, 원자재, 부품, 전력 등을 유출, 절취하는 형태로 자신의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장경제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식량,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대신 제공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계획경제를 보완한다. 반면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잉여를 조세, 준조세의 형태로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재정적 기반을 보충한다.

그림 2. 계획과 시장의 관계: 보완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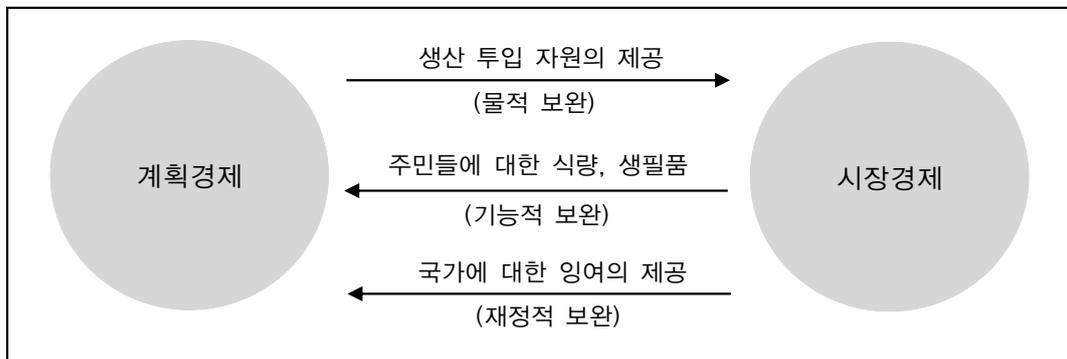


그림 3. 계획과 시장의 관계: 대립적 측면



하지만 시장경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창출한 경제적 잉여의 상당부분을 계획경제에 수탈당함으로써 스스로를 확대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내부 축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획경제이다. 즉, 각종 자원의 유출, 절취로 인해 계획경제의 물적 토대가 침식된다는 점이다. 스스로는 시장경제에 대해 아무런 자원도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잉여를 수탈하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자신의 토대 침식으로 '상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로부터 제공받은 잉여는 계획경제 내에 재투자되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비적 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잉여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유출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계획경제는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부정부패의 확산은 계획경제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국가의 명령 하달·이행 체계의 작동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편, 양자의 보완적 측면이 더 큰지, 대립적 측면이 더 큰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부터 수취하는 효과가 더 큰지, 침식당하는 효과가 더 큰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순수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양자는 대립적 요소가 더 크고, 또한 계획경제가 잠식당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변화에 주목한다면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확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확산, 나아가 범죄의 증가는 국가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러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속도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

## 라. 북한정부의 딜레마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의 토대가 와해되었고, 국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더욱이 국가가 모든 주민의 '먹을 것'을 비롯해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시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sup>7)</sup>.

7) 물론 경제의 회복, 나아가 재건을 위해서는 시장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장화는 제도적 요건에 불과하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시장화의 진전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질서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화는 개인주의, 배금주의를 발달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면서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를 뿌리채 뒤흔든다. 나아가 시장화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할 수 있다. 7·1 조치 이후 몇 년간의 상황전개는 북한 지도부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판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02년 이후 시장화 촉진정책을 펴다가 2007년부터 시장화 억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는 시장화의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지도부의 위기감 고조,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북한정부로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결국 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시장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특히 2009년 말에는 화폐개혁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시장과의 전쟁을 감행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2010년 5월부터는 시장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혀진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단속, 통제는 일시적,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

기 때문에 물적, 재정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화는 경제 회복 및 재건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 4. 향후 전망

북한에서 시장화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시장화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시장화의 촉진 요인을 보자. 북한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시장화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정부가 시장화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계획경제의 물적·기능적 토대의 와해이다. 북한에서 시장이 싹트고 발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계획경제의 사실상 붕괴이다. 계획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시장이 메워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07년부터 시장을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시장화의 진전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국가는 당, 군, 내각 등 모든 부문들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장으로부터의 잉여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다. 달리 보면 국가조차 시장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시장의 역사가 약 20년에 달하는 등 시장화의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이제 어느덧 북한경제 운영에서,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아직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인들만 보면 시장화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는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다. 계획경제 부문의 급속한 축소를 저지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자원(예컨대 식량, 에너지 등)을 직접 장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계획영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시장화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는 달리 자기운동성, 자기확대에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의 시장화는 대내외 정치적 조건의 미성숙이라는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적 리더십의 불변,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조건과 대외관계의 미개선, 특히 미국과의 관계 미개선이라는 조건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국내 자원이 고갈된 조건 하에서 생산보다는 유통의 발달, 특히 무역의 발달에 기인한다. 즉, 북한에서 시장의 발달은 뚜렷한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잉여가 각종 조세 및 준조세 형태로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수탈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부 축

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계획경제의 물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국가가 장악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서의 시장화는 개인·기업의 국가자산 절취, 즉 계획경제의 물적 기반 침식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정부패의 확산으로 계획경제의 기능적 기반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경제위기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보면 큰 흐름으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되, 시장경제가 스스로를 확대하면서 계획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일단 계획경제가 과거 수준으로 복원되고, 시장경제가 급속히 쇠퇴할 가능성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당분간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여전히 불편한 동거생활을 하되,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속도의 문제는 남는다. 시장경제가 급속하게 확대되거나, 계획경제가 급속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서서히 진행될 공산이 크다. 다만 시장화에 대해 공식 제도 차원에서 수용하는 폭을 확대하게 되면 시장화의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6.28 방침'의 본격적인 실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 2012년 특별기획

남북강원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태와 과제



# 남북강원도의 농업협력사업 추진실태와 과제

김 범 수<sup>1)</sup>

## 1. 서 론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1989년부터 2001년도까지 28천명에 선에 불과한 인적왕래는 그 이후 2011년까지 무려 33배가 증가한 96만 명이 남북한을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교역액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25억 달러에서 그 이후 2011년도까지 약 5.5배가 넘는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sup>3)</sup>도 민간차원의 지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못지않게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분단도로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강원도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지리적 분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이며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통일을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피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 등으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사업의 성격상 남북한 당국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sup>4)</sup>.

2012년과 2013년은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국들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리더

1) 강원발전연구원 DMZ연구센터장, bskim@rig.re.kr

2) 이는 금강산 등 관광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1월 추진된 제주도의 대북 감귤 지원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4) 강원도의 경우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가 심각한 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월 평균 29억 원씩 총 1,421억 원에 달하며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결혼 가정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쉽에 대변환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북한은 이미 3대 세습이 완료된 상태이고, 러시아는 푸틴정부가 재출범하였다. 남한과 미국은 대선을 앞에 두고 있으며 중국, 독일, 프랑스 등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리더십의 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교착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남북교류협력은 정부주도보다는 민간과 공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사업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영향이 적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분야 중 대표적인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현재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농정시책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것을 전제로, 확대·심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강원도 차원의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특징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징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시켰다. 그리고 강원도도 분단도가 되었다. 분단도로서 강원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특징은 국가 중심의 교류협력사업과 구별하여 ‘분권적’, ‘미시적’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방정부로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사업과 그 내용면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바램과 실질적인 화해를 위해 ‘분권적’, ‘미시적’ 접근방법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권적’이란 의미는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사업과 구별된 지방차원의 수직적 참여와 민간차원의 수평적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지역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분권적’이며 ‘미시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장기적으로 남북강원도의 공동번영과 이익 도모에 기본 원칙을 두고 추진되어왔다. 여기에는 범도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사업의 합목적적인 실리와 명분의 추구 및 강원

도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 나.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이와 같은 대원칙 하에 강원도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과 재정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먼저 교류협력 전담기구인 '남북교류지원담당'을 1998년도에 신설하고 이를 '남북협력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9년도에는 범도민적 합의와 대북지원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강원도지사 산하에 '남북강원도교류위원회'를 발족하고 2001년에는 이를 전담기구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남북강원도교류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추가로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 포함된다. 그리고 교류위원회 산하에 남북강원 지역의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급 분과위원회도 발족하였다. 동시에 북강원 지역에 대한 적절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데이터 뱅크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 확보를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도 설립하였다.

강원도는 또한 오랫동안 분단되어 온 남북강원도 간 관계 회복을 위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추진단'이라 불리는 특별 전담반도 구성하였다. 남북강원도 지역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과 재정기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운영요강' 및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도 제정하였다. 또한 지식정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강원편람을 만들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방안의 확대와 사업 시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다.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이와 같은 제도적인 기초작업을 완성한 후 강원도는 교류협력방안과 사업에 대해 사전에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① 지속성, ② 상호연관성, ③ 일관성, ④ 투명성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곧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북강원도 양측에 편익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통일 정책의 국가적인 우선과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 전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법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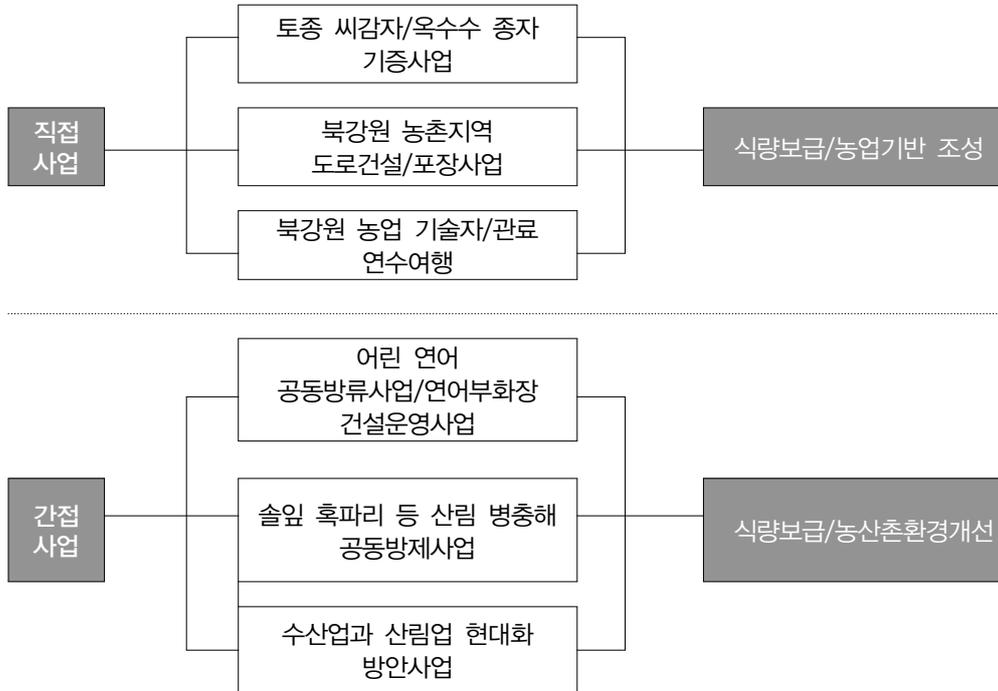
에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강원도는 우선적으로 사업 이행이 수월하고 남북강원도 양측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① 어린 연어 공동 방류사업 및 연어부화장 건설·운영사업, ②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③ 강원도 토종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 기증 사업, ④ 스포츠 교류사업, ⑤ 축제 참여 및 민속문화교류사업 등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 합의를 교환하면서 남북강원도는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확대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강원 농촌지역의 도로건설과 포장사업, 수산업과 산림업의 현대화 방안사업, 동계 스포츠행사 교류사업, 남강원도지역 축제에 북측 대표단 참가, 만화영화공동제작, 북강원도지역 농업 및 수산업 기술자와 관료들의 연수 여행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사업합의에 도달한 후 강원도의 대표단은 동해-장진-북고성-통천-안변-원산-평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경을 통해 방북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던 시기에 대표단이 육로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대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농업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① 어린 연어 공동 방류사업 및 연어부화장 건설·운영사업, ②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③ 강원도 토종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 기증사업, ④ 북강원 농촌지역의 도로건설과 포장사업, ⑤ 수산업과 산림업의 현대화 방안사업 및 ⑥ 북강원지역 농업 및 수산업 기술자와 관료들의 연수여행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농업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강원도 토종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 기증사업, 북강원 농촌지역 도로건설과 포장사업 및 농업 기술자와 관료들에 대한 연수여행제도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식량보급과 농업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개선 부문으로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린 연어 공동방류사업 및 연어부화장 건설·운영사업,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남북강원도 농업교류협력사업 현황도



### 3. 남북강원도 농업협력사업 추진 사업

#### 가. 어린연어 공동방류 및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어린 연어 공동방류사업은 2001년 4월 북고성 남강지류(후천강)와 안변군 모퉁리 남대천에서 남북강원도 양측이 총 55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한 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이후 2002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매년 50만 마리의 어린 연어 방류사업이 남강과 남대천에서 추진되었다. 어린 연어는 양양연어연구센터와 삼척시내 수면개발사업소로부터 제공받았다. 어린 연어의 이동은 설봉호와 수조차 3대를 이용하여 수송하였고, 4차례의 어린 연어방류사업에는 강원도 측 68명, 북한 측 63명 등 총 131명이 참여하였다. 총 4차례의 어린 연어 공동방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 어린연어 공동방류사업 추진 경과

1차 방류 (2001. 4. 7, 55만 마리)	북고성 남강지류(후천강) 남북 공동방류 (15만 마리)
	- 나머지는 안변군 모풍리 남대천에 북한 자체 방류(40만 마리)
	- 설봉호 이용, 수조차(3대)로 어린연어 수송
	- 남북한 32명 참여(강원도 14명, 북한 18명)
	- 양양연어연구센터(40만),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15만) 어린연어 제공
2차 방류 (2002. 4. 8, 50만 마리)	남강 15만 마리, 남대천 53만 마리
	- 남북한 34명 참여(강원도 16명, 북한 18명)
	- 양양센터(30만), 삼척사무소(20만) 어린연어 제공
3차 방류 (2003. 4. 6, 50만 마리)	남강 15만 마리, 남대천 35만 마리
	- 남북한 28명 참여(강원도 15명, 북한 13명)
	양양센터(30만), 삼척사업소(20만) 어린연어 제공
4차 방류 (2004. 4. 8, 50만 마리)	남강 15만 마리, 남대천 35만 마리
	- 남북한 37명 참여(강원도 23명, 북한 14명)
	- 양양센터(30만), 삼척사업소(20만) 어린연어 제공

어린 연어의 공동방류와 함께 2003년 12월에는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설하였다. 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의 남대천변에 건설된 연어부화장은 연간 500만 마리의 연어가 생산 가능한 시설로, 6,000평의 부지에 6동의 건물과 구조물 및 부대시설로 세워졌다. 연어부화장 건설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설계와 건설자재, 부화설비, 시공 및 부화기술을 제공하였고, 북한은 시공의 책임, 인력, 건설장비 및 현지조달 자재를 책임졌다. 2003년에 준공된 연어부화장은 2000년 12월 남북강원도의 협력사업으로 채택된 이후 건설 예정지의 현지답사와 측량, 남북한 간 설계협의(5회) 및 실시설계, 연어부화장 건설 합의를 교환, 현대아산을 통한 사업추진계약, 9회에 걸친 건설자재 및 설비지원, 그리고 7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등 3년간의 추진과정을 거쳤다. 부화장 건설 후 1차 방류는 2005년 4월에 40만 마리가 북측에 의해 독자적으로 방류되었고, 2차는 2006년 4월에 150만 마리가 방류되었다.

표 2. 안변언어부화장 건설 추진 과정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채택	2000. 12. 19
건설 예정지 현지답사 및 측량	2002. 2. 5 ~ 2. 9
남북 설계협의(5회) 및 실시설계	2002. 4월 ~ 7월
언어부화장 건설 합의서 교환	2002. 6. 5
사업추진 계약	2002. 9. 13(현대아산)
건설자재 및 설비지원	2002. 9월 ~ 2003. 10월(9회)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002. 2월 ~ 2003. 10월(7회)

## 나.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사업이 추진된 2001년도에는 금강산 지역에 소나무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해충인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로, 피해지역의 조사를 통해 남북강원도는 산림 전염병을 근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해충제를 살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또한 금강산의 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의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실시되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한 팀에서 잣나무 서식지대를 조사했고 벌(잣나무넓적잎벌)이 원인임을 밝혀내 벌들을 퇴치하기 위한 해충제를 살포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총 6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2001년 6월에 추진한 1차 방제사업은 강원도 8명, 북한 20명 등 총 28명이 참여한 금강산 삼일포 시범 방제 및 기술교류사업으로, 1차 사업을 통해 1,000ha면적을 방제할 약제와 기자재가 제공되었다. 1차 사업의 결과는 동년 10월에 확인되었는데, 92%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사업도 시범방제사업 성격으로 2002년 6월 동일한 지역에 2,000ha의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약제와 기자재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실시한 남북공동조사에서 9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차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동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3차 사업은 사스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4/25~6/25)으로 인해 시범방제 및 기술교류는 실시되지 못한 채 약제와 기자재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4차와 5차는

시범방제 성격으로 재추진되어 잣나무넓적잎벌 시범방제와 기술교류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특히 4차 시범사업의 경우, 북측에서 방제면적의 확대를 요청한 바도 있다. 5차 시범사업은 강원도 14명, 북한 2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특히 구룡연 일대에서 효과조사를 한 결과 피해로부터 뚜렷한 회복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6차 방제사업은 2006년 6월에 추진되었는데 금강산 육로로 약제와 기자재가 수송되어 6월에 북측에서 자체 방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4회에 걸쳐 추진된 방제구역은 4,000ha에 달한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4차 사업은 약제 및 기자재만 제공되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같이 금강산 구룡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의 경우 솔잎혹파리 사업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표 3.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현황

1차 방제 (시범방제 : 2001. 6. 8, 1,000ha)	-금강산 삼일포 시범방제·기술교류(약제·기자재 제공) -남북 28명 참여(강원도 8명, 북한 20명) -남북 공동조사(2001. 10. 22, 구룡연, 삼일포) 결과 92% 효과확인
2차 방제 (시범방제 : 2002. 6.4, 2,000ha)	-금강산 삼일포 시범방제·기술교류(약제·기자재 제공) -남북 27명 참여(강원도 13명, 북한 14명) -남북 공동조사(2002. 11. 2, 구룡연) 결과 90% 효과확인
3차 방제 (약제·기자재만 제공, 1,000ha)	-금강산관광 중단(사스, 4.25~6.25)으로 시범방제·기술교류 미 실시 -2003. 6. 16 인천항 출발, 6.17 남포항 도착(국양해운) -북측 자체조사 결과 87% 효과 확인
4차 방제 (시범방제 : 2004. 6. 3, 1,000ha)	-금강산 삼일포 시범방제·기술교류(약제·기자재 제공) -잣나무넓적잎벌 시범방제, 기술교류 동시실시 -남북 26명 참여(강원도 15명, 북한 11명) -북측 방제면적 확대 요청⇒기자재 축소, 약제확대로 가능
5차 방제 (시범방제 : 2005. 7. 17, 1,500ha)	-금강산 구룡연 시범방제·기술교류(6.1 약제·기자재 제공) -잣나무넓적잎벌 시범방제, 기술교류 동시실시 -남북 34명 참여(강원도 14명, 북한 20명) -남북 공동조사(2005. 11. 30, 구룡연) 결과 뚜렷한 회복상태 목격
6차 방제 (약제·기자재만 제공, 1,500ha)	-2006. 6. 9 금강산 육로 수송, 6월 북측 자체 방제 실시

## 다. 농업·도로 협력사업

농업·도로 협력사업으로는 ①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② 원산/안변 간 연어부화장 도로보수, 인도적 대북지원 차원의 ③ 못자리용 비닐 지원, 민간차원 교류협력사업인 ④ 씨감자 제공(강원대학교)/옥수수 및 감자 제공(천주교 춘천교구청) 등이 추진되었다.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사업은 보수사업에 필요한 자재 212종이 제공된 사업으로, 강원도는 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의 교류협력사업이었다. 1차 자재의 공급은 2004년 6월 동해항을 출발하여 원산항으로 이동되는 해로를 이용하여 추진되었고, 2차는 동년 9월에 고성에서 출발하여 장전항으로 이동하는 육로로 추진되었다. 원산 농민기술강습소는 북강원도농촌경리위원회 소속의 리단위 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소장과 벼, 콩, 옥수수 등의 작목별 담당 교원 8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강의 1개월과 현장실습 2개월 등 총 3개월에 걸친 과정에 연 2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자재 공급과 보수사업은 북강원도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농민기술강습소 개관

소속	북강원도농촌경리위원회
기능	리단위 농업기술 지도원에 대한 재교육
구성	소장, 작목별(벼, 콩, 옥수수 등) 담당 교원(8명)
과정	3개월(강의 1개월, 현장실습 2개월), 연 200명 정도 교육
기술지도원	분조(7~8명 또는 30명) 책임자

원산·안변 간 연어부화장 도로보수 사업은 도로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재는 울산을 출발하여 원산으로 이동되었다. 이 사업은 북강원도의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해선 도로연결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추진한 못자리용 비닐지원사업은 2000년 강원도지사가 방북할 당시 못자리용 비닐 9,000롤을 지원한 사업이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강원대학교 주관의 씨감자 30톤 제공 사업과 농협강원지역본

부 주관의 못자리용 비닐 24천롤 제공 사업, 그리고 천주교 춘천교구청이 주관이 된 옥수수 1천톤과 감자 300톤 제공사업 등이 있다.

#### 4. 남북강원도 농업협력사업 평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은 사회 각계로부터 지자체 주관의 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부는 2004년도에 강원도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특별 모범기관 표창을 했으며<sup>5)</sup>, 북측으로부터는 지자체 협력사업 중 가장 알차고 실질적인 사업이었다는 감사의 표명도 있었다.

특히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은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체식량의 확보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2010년 현재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52만 톤으로, 1970년대 초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6)</sup>. 1970년대 초반 수준의 유지가 가능한 것도 자체 생산능력보다도 상당 부분 쌀과 비료의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곡물생산과 함께 90년 중반 무너진 배급제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이 받는 배급량이 크게 줄어 2011년 북한 주민 한 사람이 받는 한 해 배급량은 1970년의 60% 정도 수준인 190kg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강원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에 어린 연어를 방류한 사업은 상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큰데, 이는 북한의 내륙 하천을 따라 고부가가치의 수산자원을 확대해 북강원도 주민의 대체식량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안변의 연어부화장은 한 번에 500만 마리 이상의 연어를 부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북한에 항구적인 연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을 통해 금강산의 산림자원이 보존·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악산으로의 병충해 피해 확대를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 관광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통일부는 강원도가 남북강원 지역 주민들간 친선관계를 돈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민족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6)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60년대 3-4백만 톤, 70년대 초반 4백만 톤, 80년대 5-6백만 톤을 유지하다 93년 913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김일성 주석이 사망 이후 급감 96년에는 259만 톤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북한 측에 농기계와 농업 기술을 제공한 것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는 취약한 북한의 농업 인프라를 현대화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남측에서는 북한 농민을 위해 도로를 보수하고 건설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참여하였다. 건설 경비, 장비, 자재 등은 남강원도 주민들이 제공했고 북측 주민들은 도로 건설 작업에 참여해 지역별 분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과거 전쟁으로 상처를 받은 두 지역이 지속적인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회 각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도에 의해 추진된 농업용 비닐과 장비 기증, 기술 지원 제공, 북강원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하우 전수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남북강원도 주민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양측 모두 강원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또한 차후 두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강원도 토종 씨감자 30톤과 옥수수 종자 1천톤을 제공한 것은 민간 차원의 교류방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식량증산을 위해 북한이 취한 종자혁명 정책에 남한의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씨감자의 제공은 당시 감자농사로 농정의 변화를 모색하려 한 북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북한은 감자재배의 확대를 위해 옥수수의 재배 면적을 줄이는 농정을 추진한 바 있다.

## 5. 결론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된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식량문제와 산림문제, 스포츠 및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은 주로 농자재의 지원, 농민기술강습소의 보수, 못자리용 비닐 지원, 씨감자 및 옥수수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부족한 식량문제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실 북한의 농업은 외부에서의 물적 지원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식량문

7) 감자재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옥수수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이모작 봄감자 및 가을감자 재배면적이 20만 ha 늘어났는데, 이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겪으면서 식량증산을 위해 이모작 확대,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초식가축사육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강원도는 물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북강원도와의 농업교류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과 농자재가 부족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여 농업기반 확충에 교류협력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이 농업 생산에 향상을 가져오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도가 전면에서 나서는 방법보다는 가능한 민간 중심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강원도는 측면에서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구조적 전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착된 남북한 관계와 기상 악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감소 및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향후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에 의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방북한 남한의 민간단체를 통해 자주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민간단체로는 도내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재외강원도민과 연계된 외국의 NGO 단체를 통한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의 NGO를 측면 지원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마도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북협력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간적으로는 북강원도로 한정된 현재의 교류협력사업을 가능한 타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새로운 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의 협력관계 모색이 필요한데, 이는 분단도로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 외교능력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북극지방의 해빙과 러시아의 남진, 중국의 동진 및 일본의 서진이 동해에서 합류하는 변화하는 환동해권시대에, 북강원도를 포함한 북한의 동해안 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 지하자원의 남북한 공동이용 및 북한 관광 등 부수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개마고원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이들에게서 추출되는 성분을 생명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는 전 지구적인 자원전쟁시대에 교류협력사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화·확대되는 환동해권 내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중국 동북3성 등지의 농장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좀 더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 농업정책

#### □ 농업정책

-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연 유기농법 (로동신문 8.6)
  -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유기농법을 알곡증산의 열쇠로 보고 도의 특성에 맞게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 강원도 농촌에서 후민산염 또는 흙보산비료와 혼합한 것을 종자처리에는 물론 모판, 포전에 밀비료와 덧비료로, 이삭비료로 이용한 결과가 좋았음. 토지가 개량되어 땅의 지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토양의 부식질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를 막음.
  - 시, 군 뿐만 아니라 각 농장에서도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니탄, 부식토, 소배설물 등에서 후민산염을 생산하여 종자처리와 농작물생육단계에 맞게 사용함. 후민산염을 질소비료 또는 농약과 섞어 잎에 분무하여 비료 및 살충효과도 보았음.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을 함께 쓴 많은 농장들은 지난해 날씨가 흐리고 냉해가 심했지만 곡식들이 피해를 입기는커녕 전해보다 천알당 무게가 더 늘어남. 올해에는 농작물이 봄철부터 40여일 간 지속된 가뭄의 피해를 받지 않음.
-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로동신문 8.12)
  - 최근 전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논벼고온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어린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물알드는 시기에 고온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이삭판 후 7~10일 간은 논벼생육에서 고온 위험기인데 이때 고온이 지속되면 눈젖세포의 증식이 잘되지 못하며 논벼가 급격

히 노화되어 여문틀과 천알무게가 심하게 떨어짐.

-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논물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함. 낮에 더워진 물은 저녁에 빼버려 밤사이 땅온도를 낮추며 흐름식물대기를 하여 물온도를 낮추어야 함. 이와 함께 포화수식 및 간단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땅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어 뿌리썩는 현상을 막고 고온피해를 덜 받도록 해야 함.
- 고온현상으로 강냉이수정이 잘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높은 온도 및 습도조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피해막이대책도 세워야 함. 논에서는 포화수식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물온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함. 밭에서는 들레배수로치기를 잘하고 후치질을 다시한번 깊숙이 해주어 이랑을 높여주어야 함.

## 2. 벼농사

### □ 풀베기

- 풀베기에 모든 힘을 집중 (로동신문 7.17)
  - 웅진군 안의 협동농장에서 풀베기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군적으로 요즘 매일 평균 1,000여 톤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면서 아침과 저녁시간을 효과있게 이용하여 풀을 베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삼산, 송월협동농장에서는 풀이 자란 상태와 운반수단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풀베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아침과 저녁시간에 풀을 베도록 하고 있음.
  - 립석협동농장의 작업반에서는 여러 가지 농사일이 겹치는 조건에 맞게 풀베기 사업을 면밀히 조직한데 기초하여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풀베기 성과가 오를수록 군일군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모든 농장에서 베어들인 풀의 양과 질에 따라 노력일평가를 정확히 하여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역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자 (로동신문 7.22)
  - 풀베기를 하는 목적은 질 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과 비료효과성 문제를 다같이 중시해야 함.
  - 린산군에서는 풀베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군안의 모든 일군, 근로자에게 풀거름 생산의 정확한 목표와 방도를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임. 토의 끝에 풀관략도를 만들고 거기에 면적, 풀종류, 생산량, 지역별에 따른 풀베기기간과 농업근로자별 하루계획을 써넣음.
  - 또한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이 모든 농장, 작업반, 분조에서 영농작업을 앞당겨 수행하고 풀을 집중적으로 베도록 노동력조직사업을 추진한 것 또한 성과가 컸음.
- 하루 평균 60여만 톤의 풀을 베다 (로동신문 8.2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요즘 매일 60여만 톤의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 매일 15만 톤 이상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군의 하루 풀베기 실적은 1만 톤을 훨씬 넘어섬. 그리하여 군에서는 풀베기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각종 선전선동수단을 이용하여 풀베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음.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하루 실적이 1.3배 이상 높아짐.
  - 평안북도에서도 풀베기 성과를 날로 확대해나가고 있음. 정주시에서는 매일 7천 톤 이상의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풀을 베는 족족 날라다가 물과 소석회를 뿌리면서 풀거름을 질 좋게 생산하고 있음.

## □ 가을걷이

- 벼 가을걷이 적기보장에서 중요한 문제 (로동신문 9.15)
  - 벼 가을걷이 적기를 정확히 보장해야 낫알허실을 없애고 논벼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음.
  - 가을걷이 적기는 벼이삭이 팬 다음의 날수를 타산하거나 벼잎이나 벼알의 색깔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함.

-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가을철 온도와 해비침률에 따라 여무는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삭뀨 후의 날수와 함께 벼잎이나 벼알의 색깔을 보고 가을걷이 적기를 정하는 것이 좋음.
  - 벼 가을걷이 적기보장에서 올해 기상조건을 고려해야 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적 지방에서 평년에 비해 벼이삭패기 전까지의 10℃ 이상 기후적산온도는 평균 156℃, 15℃ 이상 기후적산온도는 196℃ 더 높아짐. 실제로 논벼이삭패기가 전 지역에서 5~10일 정도 빨라짐.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상 및 토양조건, 품종 특성에 따르는 벼 가을걷이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여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 들여야 함.
- 벼 가을걷이 시작 (로동신문 9.23)
- 서해별방의 농촌에서 올해 벼 가을걷이가 시작됨.
  - 지난 9월 7일 안악군에서 벼 가을걷이를 먼저 시작한데 이어 사리원시를 비롯한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시, 평양시가 벼 가을걷이에 들어감. 이로써 9월 20일 현재 서해별방의 모든 도(시)에서 벼 가을걷이가 시작됨.
  -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기상조건에 맞게 시, 군, 농장에서 벼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벼 가을걷이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재령별, 연백별이 벼 가을걷이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안악군에서는 논벼의 품종별 특성과 지방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벼 가을걷이 시작날짜를 대담하게 앞당겼음.
  -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시가 벼 가을걷이에서 앞장서고 있음. 송림시, 봉산군, 은파군, 서흥군, 평산군, 황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에서도 벼가을걷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9.25)
- 황해남도에서 벼 가을이 시작됨. 안악군, 재령군, 배천군이 벼 가을에 앞장서고 있음.
  - 안악군 오군, 룡산, 신촌협동농장과 배천군 조옥희, 신월, 수원, 추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는 시작부터 벼가을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음.
  - 신천, 연안, 청단, 은천군 협동농장에서는 품종별에 따라 벼모를 낸 시기를 따

저가며 가을걷이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하루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베어낸 벼단을 잘 말리워 동가리를 치거나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들여 털어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3. 밭농사

#### □ 강냉이

- 강냉이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로동신문 7.19)
  - 강냉이개꼬리(옥수수 수술) 뽑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 것은 강냉이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임. 특히 올해 봄철 심한 가뭄으로 강냉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충하가 심한 조건에서 개꼬리뽑기는 소출증수에서 결정적 의의를 지님.
  - 강냉이개꼬리뽑기는 수강냉이를 없애고 이삭당 알수와 천알무게를 늘려 강냉이 소출을 높임. 또한 광합성량을 늘리고 통풍조건을 개선하며 해충피해를 막는데도 효과적임.
  - 조사자료에 의하면 개꼬리를 뽑지 않은 포전의 정보당 수확고를 100%로 보았을 때 개꼬리를 25% 뽑은데서는 104.2%, 50% 뽑은데서는 107.6%, 75% 뽑은데서는 107.9%의 소출증수효과를 보았음.
  - 강냉이포전에서는 개꼬리가 다 나오는데 7~10일 정도 걸림. 그러므로 2~3번에 걸쳐 약한 개체 또는 생육이 고르지 못한 강냉이포전부터 뽑는 원칙을 지켜야 함.

#### □ 밀, 보리

- 가을밀, 보리심기 한창 (로동신문 9.28)
  - 황해남도에서 가을밀, 보리심기가 한창임.
  - 송화군에서는 가을밀, 보리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함. 보여주기사업에서는 도의 농업부문 일군에게 종자준비와 적지선정, 씨뿌리기 등 가을밀, 보리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줌.

- 도적으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안악군과 배천군에서도 가을밀, 보리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청단군 화산, 양화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농촌에서는 부림소를 적극 이용하여 논갈이를 꼼꼼히 하고 있음. 은률, 벽성, 은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에서도 밀, 보리심기의 적기와 질보장에 힘을 쏟고 있음.

## □ 김매기

- 김매기를 질적으로 (로동신문 7.17)
  - 북창군 남상협동농장에서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강냉이밭 네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둠.
  - 농장일군들은 날짜별, 포전별에 따르는 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업반, 분조에 내려가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킴.
  - 작업반에서는 부림소를 잘 이용하여 후치질(배토작업)을 앞세우면서 김매기를 빠른 속도로 해나감. 제1작업반에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질적으로 해나감. 다른 작업반에서도 포전의 특성에 맞게 노동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매일 김매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 가을걷이

- 밀, 보리 가을을 다그친다 (로동신문 8.23)
  - 량강도에서 밀, 보리수확이 한창임. 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열정을 발휘하여 밀, 보리가을을 빠르게 해나가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밀, 보리수확을 빨리 하면서도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운데 맞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고 있음.
  - 대흥단군에서는 군농업경영위원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작한 밀, 보리가을이 일정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삼지연, 풍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업근로자들도 경쟁적으로 가을걷이를 실시하고 있음. 갑산, 삼수, 운흥군의 일군들도 밀, 보리수확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강냉이가을걷이 적기 (로동신문 9.2)

- 수확적기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것은 강냉이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고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강냉이를 적기보다 빨리 가을하면 낱알의 마른물질축적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천알무게와 품질이 떨어진다. 반대로 적기보다 늦게 가을하여도 천알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강냉이대가 넘어지고 이삭목이 꺾이며 들짐승의 피해를 받는 등 낱알 손실이 많아진다.
- 기상수문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적 지방에서 평년에 비하여 적산온도가 훨씬 높아진다. 그에 따라 강냉이 생육기일이 앞당겨졌다. 이러한 기상조건에 맞게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해야 봄내, 여름내 땀흘려 지어놓은 곡식을 허실 없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
- 강냉이는 자라는 마감시기에 잎과 줄기의 엽록소가 분해되어 색깔이 누렇게 된다. 강냉이알은 마르면서 굳어지며 윤기가 돛. 이 시기를 적기로 해야 함.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에서는 해당 지대의 기상기후조건과 품종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수확적기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강냉이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바로 세워야 함.

○ 재령벌의 농촌에서 (로동신문 9.1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재령벌의 농촌에서는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강냉이 가을걷이를 실시하고 있다.
- 각 농장에서는 날짜별, 포전별 가을걷이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강냉이가 익는 족족 가을을 실시하고 가을한 강냉이를 그날로 탈곡장까지 실어들이고 깨끗이 말리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강냉이 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룡교, 강교협동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강냉이를 가을하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래림, 신환포협동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노동력을 조직함. 봉성협동농장에서는 여러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강냉이 이삭을 따는 족족 실어들이고 있다.

- 강냉이가을 본격적으로 추진 (로동신문 9.20)
  - 각지 농촌에서 강냉이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배의 실적을 기록함.
  - 농업성에서는 농작물의 생육기일이 앞당겨진데 맞게 강냉이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음.
  - 남포시에서는 중소농기구준비와 함께 강냉이창고보수 및 건설, 탈곡기수리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기초하여 가을걷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특히 와우도구역, 온천군, 천리마구역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평양시에서도 강냉이 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만경대구역, 사동구역, 강남군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낱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룡천군에서는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끝내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9.25)
  - 평안북도에서 강냉이 가을걷이를 실시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적기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탈곡기 수리와 트랙터를 비롯한 룡전기재에 대한 수리정비보수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박천군, 운전군, 정주시, 광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끝내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많은 면적의 강냉이를 가을함.
  - 동림군, 염주군, 신의주시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적기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음.

## 4. 감자농사

### □ 감자농사

- 대홍단벌에서 감자수확 시작 (로동신문 9.19)
  - 대홍단벌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됨.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매일 감자수확면적이 수십정보에 달함.
  - 군에서는 룬전기재를 점검하고 기구, 공구 준비를 빠짐없이 갖추는 동시에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종합수확기에서 회전식틀보습의 경사각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흠털이효과를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감자캐기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군의 각 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감자캐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자줄기를 걷어내고 종합수확기가 포전에서 원만히 작업할 수 있게 발머리포전을 먼저 수확함.
  -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각종 크고 작은 연결고리를 수리하고 수리공을 현장에 보내 트랙터운전수와 종합수확기운전공의 작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음.
  - 군감자수송대의 운전자들은 운반회수를 늘려 감자를 캐는 족족 실어들이고 있음.
- 감자캐기 한창 (로동신문 10.2)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 지난 9월 중순에 시작된 감자캐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고산지대에서 9월말 현재 감자캐기실적이 45%를 넘어섬.
  - 자강도에서는 감자캐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룡림군과 화평군, 중강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이미 감자캐기가 끝나고 량림군에서는 60%를 넘어섬. 그리하여 9월말 현재 도의 감자캐기가 83% 수준에 달함.
  - 함경북도에서도 감자캐기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온성군, 회령시, 경흥군, 부령군 등 시, 군에서는 감자캐기가 이미 끝났음. 9월말 현재 도의 감자캐기 실적은 62%를 넘어섬.
  - 함경남도 고산지대에서도 비가 자주 내리는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감자캐기 적기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대규모 감자산지인 집중된 량강도에서 감자캐기가 실시되고 있음.

- 삼지연군과 백암군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감자캐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혜산시에서는 감자캐기가 이미 끝났으며 김정숙군에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섬.
- 올해 큰물피해를 많이 받은 조건에서 감자산지에서는 감자종자고르기와 보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5. 축 산

### □ 축산동향

- 집짐승기르기에서 비알곡먹이를 이용한 경험 (로동신문 9.12)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해마다 2,500여 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여 농장원세대에 나눠주고 있음. 이는 먹이문제를 실정에 맞게 해결했기에 가능함.
  - 축산작업반원들은 농장실정에 맞게 먹이작물을 배치하고 낱알짚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집짐승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됨. 이를 바탕으로 집짐승기르기에서 성과를 거둠.
  - 먹이작물배치를 실정에 맞게 잘한 것이 중요함. 작업반에서는 먹이밭에 주로 호밀, 애국풀, 뚝감자를 심었는데 그중 호밀은 전체 면적의 30%임. 호밀의 줄기와 잎은 다른 먹이작물에 비해 아주 효과적임.
  - 애국풀의 경우 애국풀을 먹은 젖소는 젖이 잘 나오며, 이것을 돼지먹이로 이용하면 증체율도 높일 수 있음. 뚝감자 역시 캐어 저장하였다가 이른 봄에 이용하면 집짐승에게 더없이 좋은 먹이임.
  - 강냉이짚을 미생물처리한 것도 먹이로 매우 좋음. 분쇄한 강냉이 짚에 종균을 주입시키고 비닐박막으로 씌어놓으면 좋은 집짐승먹이가 됨.
- 큰단백풀로 많은 축산물을 생산 (로동신문 9.20)
  - 최근 강원도 농촌에서 집짐승먹이로 이용하고 있는 큰단백풀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음.
  - 큰단백풀에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여러 가지 미량원소,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음. 이로부터 큰단백풀은 돼지, 계사니, 오리, 닭을 비롯한 집짐승의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임.

- 안변, 고산, 창도, 천내군, 문천시를 비롯하여 도안의 농촌에서는 못을 만들어 놓고 양어와 큰단백풀 재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안변군 화산농장의 축산기지가 대표적인 실례로 농장에서는 1,000㎡의 못에서 생산된 큰단백풀로 많은 집짐승을 길러내고 있음. 또한 이것에서 생산하는 유기질거름은 1,000여 톤에 달함.
  - 현재 도안의 많은 축산작업반에서는 1,000마리 정도의 닭을 기르고 있으며 그 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하여 돼지먹이로 이용하고 있음.
- 집짐승기르기에 비알곡먹이를 리용한 경험 (로동신문 9.24)
- 화대군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집짐승기르기에 비알곡먹이를 적극 이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집짐승우리를 번듯하게 건설하고 돼지와 닭을 비롯한 집짐승을 기르기 위하여 낱알털기를 하면서 나오는 쪽정이벼알을 비롯한 부산물을 집짐승먹이로 이용함.
  - 이렇게 나온 부산물을 미분하여 집짐승먹이에 40% 정도로 섞어 사용하니 집짐승이 잘 먹을뿐 아니라 알곡먹이를 이용할 때에 비하여 증체율도 떨어지지 않음.
  - 작업반에서는 닭배설물도 돼지먹이로 이용함. 결과 비알곡먹이비중이 더욱 높아짐.
  - 먹이문제가 풀려 모든 작업반원이 축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축산물 생산은 더욱 늘어남.
- 집짐승 겨울나기 준비를 실속있게 (로동신문 9.24)
- 정주시 일해협동농장 제10작업반에서 축산물 생산의 밝은 전망을 마련함.
  - 작업반에서 자체의 힘으로 번듯하게 세운 축산기지에 돼지, 닭, 오리, 계사니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이 있음.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해 작업반에서는 집짐승겨울나기 준비에 힘을 쏟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집짐승의 겨울철 먹이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곡식짚과 남새부산물을 하나도 버림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비육분조에서는 먹이창고와 저장시설을 잘 꾸려 단 한 g의 먹이도 허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빈틈없이 함. 이와 함께 겨울철 조건에 맞게 집짐승우리를 수리보수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움.

○ 큰단백풀을 대대적으로 재배 (로동신문 9.25)

- 강원도에서 큰단백풀을 집짐승먹이로 적극 이용하고 있음. 최근 강원도의 집짐승을 기르는 단위에서 큰단백풀 재배장을 꾸려놓고 생산을 늘려 집짐승먹이로 널리 이용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에 따라 집짐승을 기르는 모든 단위에서 큰단백풀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큰단백풀을 먹이로 이용하여 고기생산을 늘리고 있는 안변군 화산농장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에서는 집짐승을 기르는 단위마다 큰단백풀 재배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늘리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도적으로 1,000여 개소에 큰단백풀 재배장이 꾸려짐.
- 안변군 화산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수십 톤의 큰단백풀을 생산하여 그 덕을 크게 봄. 원산시에서는 큰단백풀을 재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선전하기 위한 강습을 조직하여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 큰단백풀장을 대대적으로 꾸려놓게 함.

○ 회령군민돼지공장 조업식 진행 (로동신문 10.5)

- 회령군민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먹이가공과 공급, 사양관리, 고기가공을 비롯한 모든 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로 갖추어졌으며 고기와 여러 가지 가공품생산을 늘려 회령시민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회령군민돼지공장 조업식은 4일에 진행되었으며 김인식 내각부총리,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황민 농업상, 오수용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함.

○ 축산물 생산에 힘을 넣어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로동신문 10.7)

- 평북돼지공장에서 고기생산에 주력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 평북돼지공장에서는 알곡먹이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면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생산과 고기생산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공장에서는 미생물발효처리방법으로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돌과구를 열어놓음.
- 농산작업반원들은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성과를 내게 하고 있음.

## 6. 농업기반

###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홍건도간석지 건설 시작, 6만산(m<sup>2</sup>) 밭과 진행 (로동신문 9.10)
  - 홍건도간석지 건설이 시작됨. 이는 선천앞바다의 여러섬을 연결하여 날바다를 막아 수천정보의 새땅을 얻어내는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임.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은 공사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수천m의 작업도로 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해내고 제방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밭과준비를 실시함.
  - 밭과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장약실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연 200여m 굴진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밭과준비가 끝나고 6만산(m<sup>2</sup>) 밭과가 성과적으로 진행됨.
- 홍건도간석지 건설사업 진행 (로동신문 9.13)
  - 홍건도간석지건설장에 나온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 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채석장전개를 위한 토량처리를 빠르게 실시하고 여러 개의 굴진개소를 마련하며 도로를 개척하여 전기선공사를 추진하였음.
  - 도로건설공사를 맡은 단위에서는 낮과 밤이 없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수천m의 도로를 새로 냈으며 석축공사와 물빼기시설물공사를 한달 동안에 끝냄.
  - 청강, 다사기계화사업소에서는 1호와 5호 방조제 건설을 기한 내에 끝낼 목표 아래 윤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막돌과 흙운반계획을 150% 이상 수행하고 있음.

## 7. 산림

### □ 나무심기

- 1,300여 정보를 푸른 숲으로 (로동신문 9.14)
  - 북창군 인포로동자구의 1,300여 정보에 달하는 산지가 푸른 숲으로 변화함. 특히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수종이 좋은 나무로 가는 곳마다 용재림이 조성되고 있음.
  - 북창군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산림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밤이 되면 나무모기르기와 나무심기, 비배관리와 보호대책 등 산림부문의 전문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탄광에서 경제적이용가치가 큰 창성이 깔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데 큰 힘을 기울임.
  - 또한 탄광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주민들의 땀감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며 잡관목과 새롭게 개조해야 할 임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숲속베기를 합리적으로 하여 제기되는 목재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한 사업도 추진함.
  - 이러한 노력으로 10년 남짓한 기간에 1,300여 정보에 달하는 산림조성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

### □ 나무모 생산

- 큰 성과를 내게 될 양묘장 (로동신문 8.6)
  - 대관군산림경영소 양묘장에는 근 20정보에 달하는 규격화된 포전에 잣나무, 세잎소나무, 이깔나무, 가래나무,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무모가 자라고 있으며 한해에 나무모가 수백만 그루나 생산됨.
  - 최근 양묘장에 나무모온실을 새로 지었는데 이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나무모생산을 집약화할 수 있게 하였음. 여기서는 나무모를 삼목의 방법과 영양단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있음.
  - 또한 회전식분무장치를 설치한 원형나무모재배장에서도 삼목의 방법으로 수종이 좋은 각종 나무모를 수십만그루 키우고 있음. 회전식분무장치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종자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기일을 훨씬 앞당기게 됨.

- 특히 한해에 김을 10회 이상 매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가림을 해주면서 많은 품을 들여야하는 창성이깔나무모도 여기서는 손쉽게 키우고 있음.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로동신문 8.8)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연석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0년 동안 전국적으로 나무모발면적이 수천정보 더 늘어나고 200여 개의 양묘장에서 회전식 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을 도입하여 해마다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한 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양묘장에서는 백수십 정보의 면적에 채종구, 풍토순화구, 품종보존구, 과종구를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공업화, 과학화, 집약화하고 있음.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시, 군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에서 회전식 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나무모를 키워내고 있음.
  -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시, 군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에서 새로운 수종의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 왕밤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새로운 밤나무모 생산방법 연구완성 (로동신문 9.20)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에서 새로운 밤나무모 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는 성과를 거둠. 이전시기와 달리 밤종자를 쓰지 않는 새로운 나무모생산방법이 연구완성되어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밤나무모를 키워내자면 많은 종자가 필요함. 결국 종자확보에 많은 품이 들어 밤나무모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 있었음.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밤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영양번식에 의한 밤나무접그루생산방법이 완성됨. 종자를 쓰지 않는 새로운 밤나무모 생산방법이 완성되어 늘어나는 나무모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밤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과수학연구소에서 새로운 밤나무모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튼튼한 나무모를 빨리 키워낼 수 있게 되었음.
  - 과수련합총회사와 농업성에서는 우월성이 확증된 새로운 밤나무모생산방법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나무모 비배관리에서 혁신 (로동신문 10.1)
  - 송원군산림경영소에서는 올해 봄 산림조성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군의 산림조성실태와 자연지대적특성에 맞게 목재림, 기름나무림, 섬유림, 땀나무림을 비롯한 수만 정보의 산림을 짧은 기간에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나무모생산을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회양양묘작업반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회전식분무장치를 받아들여 적은 면적에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음. 개고청년양묘작업반에서도 회전식분무장치를 설치한 원형나무모재배장을 훌륭히 건설함.
  - 산림경영소에서는 회양양묘작업반의 배수로공사를 맡아 나무모영양단지를 생산할수 있는 건물을 건축함. 또한 나무모밭을 더 조성하고 창성이갈나무, 평양포플러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고 쓸모 있는 나무모를 해마다 수백만그루 이상 생산할 수 있게 해놓음.
  - 산림경영소의 양묘장에서는 지금 올해 가을과 다음해 봄에 심을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키우고 있으며, 잣나무종자도 마련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8. 기타 작물

### □ 과수

- 첫물복숭아를 실은 과일수송대 평양도착 (로동신문 7.16)
  -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생산한 첫물복숭아를 실은 과일수송대가 15일 오전 평양에 도착함.
  - 올해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비배관리를 잘하여 좋은 작황을 마련함.
  - 김일성광장에 도착한 과일수송대는 김정숙탁아소와 강반석탁아소를 비롯하여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상업망으로 향함.
  - 첫물복숭아를 실은 자동차 수송대에 이어 수도시민을 위해 맛있는 과일을 실은 열차수송대도 곧 도착하게 됨.
- 고산과수농장에서 첫물과일 수확 (로동신문 7.18)
  - 올해 고산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 그루당,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세우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 올해 봄날씨는 과일나무의 생육에 매우 불리하였지만 꽃피는 시기에 과수원마다 벌통을 놓아주어 복숭아, 추리꽃의 수정률을 높임으로써 많은 열매가 열리도록 하였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덧거름주기과 가지자르기, 열매숙음, 토양관리, 농약뿌리기를 비롯한 영농공정을 적기에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
  - 모든 분장에서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염을 비롯한 유기질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과일나무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
  - 승리분장, 사현분장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약뿌리기를 철저히 하면서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로 잎덧비료주기도 추진함. 그리하여 가뭄이 지속된 기상조건에서도 복숭아, 추리나무마다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됨.
- 좋은 과일작황을 마련 (로동신문 9.14)
- 사리원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각 농장에서 짧은 기간에 모든 과일나무를 우량품종을 바꾸도록 했으며 이에 맞게 땅다루기와 거름주기, 가지자르기, 열매숙아주기, 농약뿌리기 등 과일나무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음.
  - 특히 매주 기술학습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우량품종과일나무의 특성과 그 관리방법을 근로자들이 잘 알고 과일나무를 과학기술적으로 가꾸도록 하였음.
- 청춘과원에서 첫 열매를 따들였다 (로동신문 9.18)
- 평안북도과수연합회사 동림과수농장의 일군, 근로자가 새로 조성한 청춘과원에서 첫 열매를 수확함.
  - 2년 전 동림군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수십 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원이 빨리 성과를 내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과수농장은 물론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부식토생산, 열두바닥과기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많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실어냄.

- 결과 2년 전에 심은 키낮은 사과나무에서 탐스럽고 향기로운 첫 열매를 수확함.
- 사과따기 한창 (로동신문 10.6)
  -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사과따기가 한창임. 매일 수십 톤의 사과를 따들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사과밭 비배관리를 철저히하여 연간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과수4작업반과 청년작업반에서는 매일 사과따기계획을 1.2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 농장 일군과 기계화작업반의 트랙터운전수들은 사과를 따는 즉시 과일보관고를 정성껏 실어나르며 잘 보관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 남새

- 가을 남새농사에 큰 힘을 넣어 (로동신문 9.21)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에서 가을 남새농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시의 모든 농장이 적기에 남새파종을 끝내고 남새밭 비배관리에 힘을 넣음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가을무우와 배추의 생육상태가 훨씬 좋아짐.
  -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에 남새농사에 우리식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군들이 앞장서서 남새농사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생산에 힘을 넣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는 남새밭에 많은 거름을 내고 제철에 파종을 끝내는 것과 함께 여러차례의 후치질과 김매기를 진행하고 잎덧비료주기를 잘하여 남새포전에 좋은 작황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남새포전에 관수체계를 받아들이고 유기질비료와 농약을 과학기술적으로 시비함. 락랑구역과 대성구역의 협동농장에서도 가을남새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더 많은 가을남새를 (로동신문 9.27)
  - 무산군 읍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 모 옮겨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가꾸도록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적극 이용하여 가을남새의 생육기일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제2작업반이 가을남새 가꾸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음. 작업반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김매기와 덧거름주기, 고랑관수 등 모든 작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음.
- 다른 작업반에서도 더 많은 가을 남새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포기마다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

## 9. 기타 보도 동향

### □ 비료, 거름

- 주체비료생산에서 혁신 (로동신문 9.16)
  -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기업소에서 가스화공정뿐 아니라 현대적인 물전해공정도 잘 운영하여 질소비료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질좋은 비료가 연일 생산되고 있음.
  - 연합기업소의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원료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실시하여 비료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음. 또한 내각과 화학공업성의 지도밑에 석탄공업성, 철도성, 연관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체비료생산의 마감공정에 나선 요소직장의 일군, 노동자, 기술자들 또한 요소비료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음.
- 실리 있는 흙보산비료 생산방법 (로동신문 9.20)
  -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의 흙보산비료 생산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 농장에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생물활성퇴비를 더미로 쌓고 가마니를 씌운 다음 그 위에 니탄과 암모니아수, 진거름을 섞은 혼합물을 덧쌓음. 이때 생물활성퇴비와 흙보산비료원료 더미의

높이를 각각 1.7m가 되게 쌓음. 더미 위에는 질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생물활성퇴비를 1m의 두께로 또 덮어줌.

- 그리고 생물활성퇴비더미와 흙보산비료원료더미에 각각 3개씩의 온도계를 꽂아줌. 20일 정도 되면 생물활성퇴비더미의 온도가 60℃ 이상 오름.
- 이렇게 더미 안의 온도에 따라 숙성기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생산한 흙보산비료에는 후민산이 16% 이상 들어 있어 농작물의 생육에 아주 좋음.
- 모든 작업반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정보당 5톤 이상씩 실어내어 그 덕을 톡톡히 봄.

## □ 홍수

- 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7.21)
  - 관측자료에 의하면 올해 7~8월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며 무더기비도 쏟아질 것이 예견됨. 농촌경리부문은 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농촌에서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 각지 농촌에서는 노동력과 기계를 동원하여 물길, 배수로를 정리함으로써 제방이 터지지 않게 해야 함. 논물관리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함.
  - 고인물빠기 양수설비를 잘 갖추어놓아야 함. 농촌에서는 빗물이 고이는 곳에 고인물빠기 양수장을 배치하고 알맞은 능력의 양수기를 설치해야 함.
  - 저수지와 물길을 비롯하여 장마철에 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함. 또한 무더기비에 토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는 장마철감자밭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병해충과 습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물길정리에서 혁신 (로동신문 7.21)
  - 문덕군 마산협동농장의 일군, 농장원들이 장마철피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농장에서는 물길이 여러 갈래로 뻗어있고 포전이 낮은 곳에 있어 비가 오면

잠길 수 있는 면적이 적지 않음. 올해 농사를 잘 짓는데서 장마철 피해를 막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물길정리사업을 예견성 있게 추진함.

- 포전이 물에 잠기면 정보당 수확고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열의를 갖도록 함.
- 농장의 일군, 농장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며칠 안되는 기간에 수천 m<sup>2</sup>에 달하는 흙과 모래를 처리하여 물길바닥을 낮추었으며 10여 km에 달하는 물길뚝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함.

○ 큰물피해 복구사업에 온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8.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와 다리, 철길, 강하천제방, 전력망, 통신망이 파괴되었으며 수천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매몰됨.
- 피해를 많이 입은 안주시 일군들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시책임일군들이 피해지역을 한 개 대상씩 맡아 복구에 힘쓰고 있음.
-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는데 힘을 넣고 있음. 식량과 먹는물, 의약품,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살림집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시 건설할 것은 빠른 기간에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또한 파괴된 도로, 다리, 철길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침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큰물피해 복구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8.8)

- 함경남도에서 살림집과 도로, 철길, 농경지, 제방 등을 복구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단천시는 물에 잠겼던 수백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보수하고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배수장의 양수기에 만부하를 걸어 침수된 농경지의 고인 물을 퍼냄.
- 피해가 큰 룡양광산에서는 수백m<sup>2</sup>의 토량을 처리하여 생산계통과 구내선철길복구를 끝내고 파괴된 살림집과 학교, 생산건물에 대한 보수를 마감하고 있음.

- 요덕군과 수동지구에서는 룬전기계와 역량을 집중하여 수십 km의 도로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자재와 물자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큰물피해 복구사업을 통이 크게 (로동신문 9.14)
  - 지난 8월 28일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함경남도에서는 검덕지구와 여러 시, 군이 큰 피해를 입음.
  - 단천시, 북청, 덕성, 부전, 장진, 신흥, 영광, 함주, 정평군을 비롯하여 도의 여러 시, 군에서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 다리가 끊어짐. 소형발전소의 발전기실과 방수호가 파괴됨. 강하천제방이 터져나가 적지 않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됨.
  -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을 비롯한 각 일꾼들은 큰물피해 현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인민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과 시, 군당위원회, 인민위원회, 공장, 기업소에서도 노동력과 룬전기재, 자재보장대책을 세우며 큰물피해복구사업에 앞장서고 있음.
  - 덕성군에서는 파괴된 북청-해산도로를 이틀도 안되는 사이에 복구하고 터져나간 강하천제방공사도 제때에 실시함. 영광군에서도 파괴된 도로복구전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함주군, 정평군에서는 금진강계단식발전소를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큰물피해복구 마감단계에서 추진 (로동신문 10.4)
  - 평안북도에서 큰물피해복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운산, 박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세워지고 수백동의 공공건물건축공사가 완공됨.
  -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큰물피해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축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와 강하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박천, 운산, 구장군에서는 도로와 강하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산군에서는 도로와 다리, 강하천과 철길복구 사업을 끝냄. 녕변군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살림집과 40여 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끝내고 다리와 도로복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내각과 성, 중앙기관에서는 노동력과 시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도의 피해복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음.

## □ 현지지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사동구역, 린산군 농장 현지파악 (로동신문 7.2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영림 내각총리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파악함. 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해 기업소에 전기를 충분히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송배전망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함.
  - 또한 사동구역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을 돌아보며 농장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남새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함.
  - 린산군 대촌농장에도 방문하여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성천군과 신양군의 큰물피해복구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1)
  - 최영림총리는 성천군의 큰물피해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총리는 성천읍지구와 읍협동농장, 룡흥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부문별 피해상황, 토지유실 및 매몰실태와 큰물피해복구진척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함.
  - 또한 총리는 신양군의 큰물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방야계공사를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했으며 필요한 대책을 세움.
- 안주시 큰물피해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5)
  - 최영림총리는 안주시의 큰물피해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안주시는 최근 폭우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대부분의 공공건물, 산업시설이 침수, 파괴되었으며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알곡작물에 대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상하수도망과 전력계통이 마비되어 주민세대의 먹는물과 전력보장이 어렵게 됨.

- 총리는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긴급협의회를 열어 피해복구에서 순서를 바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함.
- 향산군과 구장군의 큰물피해 복구상황 현지파악 (로동신문 8.24)
  - 최영림내각총리는 향산군과 구장군의 큰물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향산군과 구장군은 폭우로 저수지와 강하천제방이 터져 수백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다리, 관광 및 등산도로, 철길로반이 파괴되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심한 피해를 입음.
  - 현지에서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폭우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방도와 복구사업에서 순서를 바로 정하며 전망적인 견지에서 국토설계를 과학적으로 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됨.
  - 또한 내각을 비롯한 관련 단위에서 복구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지방의 예비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였음.
-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현지지도 (로동신문 9.22)
  - 김정은 원수가 장성택, 김기남, 리재일, 리룡하, 박태성, 김병호, 박춘홍과 함께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함.
  - 백수십정보의 넓은 부지에 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는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현대적인 온실과 시험포전, 첨단생물과학 연구설비를 갖춘 최신식 남새 및 화초 연구생산기지임.
  -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는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종전에 비해 정보당 수확량을 2배로 늘릴수 있게 되었으며, 20여가지 토마토 품종을 비롯하여 50여가지 남새품종을 연구시험하고 있음.
  - 또한 종전에 비해 화초생산능력을 20여 배 늘렸으며, 20여 종의 새 품종을 육종하여 국가품종으로 등록함.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 경제일반

#### 중앙당 검열조, 공장기업소 생산설비 실사

- 북한이 6·28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설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23일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가계획위원회 설비감독과, 각 도 설비감독국, 중앙 검찰소 등으로 구성된 중앙당 검열조를 각 지방에 파견,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소식통은 “새로운 경제조치 시행을 앞두고 각 공장기업소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생산설비와 관련된 검열이니 만큼 설비관련 일꾼들이 (검열조에) 대거 소집됐다”고 말함. 검찰의 중앙당 검열조 합류는 생산도구를 모두 국가소유로 법제화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중앙당 검열조는 공장기업의 생산설비를 파악하고, 폐기할 것과 재가동할 것을 분류한 후 폐기품목에 대한 국가지원 여부를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이번 검열과정에서 공장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은 배제한 채, 순전히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중앙당 검열조, 공장기업소 생산설비 실사", 2012.7.24

#### 상반기 북중 교역액 31억 달러…사상 최대

- 올해 상반기 북한-중국의 교역액이 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중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12억 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6천만 달러에 비해 22% 증가했음. 수입도 지난해 14억 5천만 달러보다 26% 늘어난 18억 3,700만 달러였음.

- 이로써 북중 간 상반기 총 교역액은 31억 3,5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25억 1,300만 달러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연합뉴스, "상반기 북중 교역액 31억 달러...사상 최대", 2012.7.27

#### □ 北 '신의주, 남포, 해주 경제특구 지정 예정'

- 북한이 신의주와 남포, 해주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곧 지정하고 평양에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새로 지정하는 특구 가운데 중국 단둥과 인접한 평안북도 신의주 특구는 공업과 상업 금융 등을 유치해 자유무역도시로 개발하면서 동북아 최대 물류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CBS노컷뉴스에 밝힘.
  - 소식통은 또 “평양과 인접한 남포 경제특구는 북한 최대의 항구로 기반 시설이 잘 조성돼 전자와 IT산업을 중심으로 생필품 관련 경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황해남도 해주경제특구는 서해안을 중심지로 건축자재인 모래와 석재산업, 석회석광산을 개발하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서해의 평화특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 남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3개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면 외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주지역까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앞으로 내륙지역까지 대외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 노컷뉴스, "北 '신의주, 남포, 해주 경제특구 지정 예정'", 2012.7.28

#### □ 北中 황금평 개발 사업 중단...北정책에 불만

- 일본 아사히신문은 29일 북한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황금평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요구하자 중국이 반발해 지난 6월 이 지역 개발사업을 중단했다고 전함.
- 신문은 사업 중단 배경에 대해 북한이 섬의 도로나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길 원한 반면, 중국측 투자는 북한의 정책을 불안해하며 투자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함.

-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지난 6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중국이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황금평 공동개발 사업을 보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한 바 있음.

데일리NK, "北中 황금평 개발 사업 중단...北정책에 불만", 2012.7.29

#### □ 2010년 북중정상회담서 中유휴지 경작 합의

- 2010년 8월 북한 김정일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창춘(長春)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헤이룽장(黑龍江)성 소재 수십만 정보의 유휴지(遊休地)를 북한이 직접 경작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정은이 현재 이를 시행에 옮기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당시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의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유휴지를 북한에 장기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과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이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지난해부터 헤이룽장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 토지를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음.
- 일반적으로 농경지 1정보에서 약 6~7톤의 쌀을 생산한다고 감안할 때 중국이 20만 정보의 유휴지를 제공하면 약 120~140만 톤의 쌀을 수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데일리NK, "2010년 북중정상회담서 中유휴지 경작 합의", 2012.7.29

#### □ 北 대풍그룹, 실적부진으로 해체

- 북한의 외자유치 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이 실적 부진 등으로 해체된 것으로 알려짐. 대풍그룹은 2010년 1월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의 투자유치 창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금강산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관여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음.
-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파면된 뒤 다른 직책을 맡지 않고 있고 국가개발은행도 해체된 것으로 전해짐. 대풍그룹이 해체됨에 따라 또 다른 외자유치 기구

인 내각 합영투자위원회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정권이 경제사업에서 군부의 입김을 약화시키고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됨.

- 한 북한 전문가는 “그동안 대풍그룹과 합영투자위가 경쟁구도가 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이 외자유치 창구를 합영투자위로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대풍그룹, 실적부진으로 해체", 2012.8.5

#### □ 개성공단 北 최저임금 67.005\$.5% 인상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됨.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 임금을 5% 인상키로 합의함.
-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존 63.814달러에서 67.005달러로 인상됨. 인상된 최저 임금은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됨.
- 통일부에 따르면 사회보장료,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1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올해 상반기에는 이 평균 임금이 130달러 수준까지 올랐음.

연합뉴스, "개성공단 北 최저임금 67.005\$.5% 인상", 2012.8.7

#### □ 北, 중소기업과 광산 3곳 합작개발 계약

- 9일 북한 조선투자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지난 6월 9일 중국기업인 베이징 바오위안형창국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지역 내 광산을 합작개발하는 계약을 맺음.
-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조선투자사무소가 그동안 ‘채굴량 무제한’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을 것으로 보임.
-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의 외자 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로, 외자 유치 실적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현재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에 8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규모 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의 채굴권을 갖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2008년 248만 톤에서 2009년 373만 3천 톤, 2010년 479만 9천 톤으로 증가했고, 2011년도에는 1~9월에만 842만 톤에 달했음.

연합뉴스, "北, 中기업과 광산 3곳 합작개발 계약", 2012.8.9

#### □ 北, '새 경제관리 체계'...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근로자들의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6일부터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하게 시작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함.
- 특히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도록 했으며,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종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밝힘.
- 함경북도 소식통은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둬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당국이 70%,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갖도록 규정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시기에 대해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공장기업소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풀이함.

노컷뉴스, "北, '새 경제관리 체계'...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2012.8.9

#### □ 北,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조치 착수

- 교도 통신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

시로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

고 9일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가격 조정의 대상은 양말과 비누, 치약 등의 생활필수품이며, 국가가 보조해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싸게 유지하겠다는 것임.
- 이는 중국 상품이 대량 유통되는 일반시장(비국영시장)과 국영시장의 2중 가격 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임.

연합뉴스, "北,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조치 착수", 2012.8.9

#### □ 北, '신경제조치' 시행 앞두고 환율 급등

- 북한의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앞두고 북-중 국경지역 장마당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0일 "도당 간부들의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지난 8일 혜산장마당에서 전날까지 중국돈 1위안에 북한 돈 840원에 머물던 환율이 갑자기 1위안에 북한 돈 950원으로 급등해 한때 모든 장사행위가 중단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또한 소식통은 "이제는 집전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도 평양에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르내린다"며 "혜산장마당에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평양에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소식통들은 "이달 8일에 있었던 환율파동을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과 장사꾼들 간에 조성된 긴장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며칠 내로 환율과 장마당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봄.

노컷뉴스, "北, '신경제조치' 시행 앞두고 환율 급등", 2012.8.11

#### □ 상반기 개성공단 생산액 전년比 23% 증가

-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올해 상반기(1~6월) 총 생산액은 2억 3,608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작년 동기의 1억 9,201만 달러보다 22.95% 늘어난 수준임.
- 월 생산액도 지난 3월 처음으로 4천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5월 4,294만 달

리, 6월 4,289만 달러 등으로 4천만 달러대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

- 개성공단 생산액의 꾸준한 증가는 노동집약형 구조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작년 1월 4만 6,194명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올해 1월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6월 말 현재 5만 1,310명을 기록 중임.

연합뉴스, "상반기 개성공단 생산액 전년比 23% 증가", 2012.8.21

#### □ 北中공동관리 수풍댐 홍수방지시설 완공

-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수풍댐)의 홍수방지시설 공사가 최근 완료됨.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에서 열리는 수풍발전소 홍수방지시설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북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의 북한 측 이사장인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북중 양측은 압록강의 홍수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8월15일부터 수풍발전소의 댐과 수문에 대한 개조공사를 진행해 왔음.
- 양측은 과거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절반씩 나눠 사용해왔지만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는 생산된 전력 전량이 평양시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中공동관리 수풍댐 홍수방지시설 완공", 2012.8.29

#### □ 북-중 교역액 35억 달러…지난해 동기 15% 대비 증가

-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북-중간 교역액이 35억 5천만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북한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5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만 달러 정도 늘었음.
-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는 석탄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는 8억4천만 달러, 철

광석 1억 4천만 달러, 비합금선철 4천7백만 달러 순으로 집계됨. 북한이 7월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로 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어 20톤 이상 화물차 7천만 달러, 석유와 역청유 6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함. 북한은 또 밀가루와 옥수수, 쌀 등 곡물류 7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음.

노컷뉴스, "북·중 교역액 35억 달러...지난해 동기 15% 대비 증가", 2012.8.30

#### □ 北 장마당, "북한돈 거래 대신 물물교환 성행"

- 북한당국의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장마당에서 북한 돈 받기를 꺼려 물물교환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31일 “새경제관리체계 시행과 관련한 경제일꾼 실무강습이 진행되면서 환율이 종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며 “장마당 장사꾼들은 북한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8.3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패쪽(팻말)을 내걸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중국 인민폐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식량이나 다른 필수품들로 물물교환을 하는 실정”이라며 “회령 장마당에서 입쌀 1kg의 값어치는 중국 인민폐 5원 50전, 강냉이 1kg은 인민폐 3원 정도 된다”고 전함.
- 또, “강냉이 1kg이면 25%짜리 술 두병을 맞바꿀 수 있으며, 라선시에서 생산된 운동화 한 켤레면 입쌀 1kg을 바꿀 수 있다”고 전함.

노컷뉴스, "北 장마당, "북한돈 거래 대신 물물교환 성행"", 2012.9.1

#### □ 北中, 나진항~원정리 도로 이달 개통식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통로로 떠오른 북한 나진항과 원정리 사이의 도로가 이달 정식으로 개통됨.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중(북중) 두 나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의 하나인 나진항~원정리 도로가 개건됐다”며 “개통식이 9월 경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권을 확보하면서 훈춘~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으며 북중 양국은 지난해 6월 원정리~나진항 도로의 보수착공식을 연 뒤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넓혀 포장하고 중·소형교량을 놓는 공사를 진행해왔음.

- 중앙통신은 도로 개통의 효과로 주행시간이 절반 이상 줄고 운송수단의 통과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며 “화물중계수송과 관광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함. 중앙통신은 또 북한과 중국이 나진~훈춘고속도로와 두만강에 새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北中, 나진항~원정리 도로 이달 개통식", 2012.9.4

#### □ 北, 기업·정부 7대3 수익분배제 도입

- 북한이 오는 10월부터 국영기업·상점의 수익 중 30%만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남겨두는 내용의 경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중국 선양(瀋陽)발로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가 기업에 필요 경비나 임금을 다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의 70%를 기업·상점에 남기고, 30%만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함.
- 신문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3년 만에 좌절했다”며 “이번에는 소규모 기업부터 착수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부작용을 피할 전망”이라고 예상했음.

연합뉴스, "北, 기업·정부 7대3 수익분배제 도입", 2012.9.4

#### □ 北, 나선서 농업시범구 560정보 운영

- 북한은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560여 정보(약 555만㎡)의 고효율 농업시범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밝힘. 북한과 중국 곡물생산기업인 베이다황(北大荒) 그룹의 합의에 따라 나선베이다황친선농업회사가 설립됐다고 통신은 덧붙임.
- 통신은 “조중(북중) 두 나라 농업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벼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작황이 매우 좋다”며 “온실에서 지난 6월 말 과중한 토마토와 오이, 가지 등의 남새(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北, 나선서 농업시범구 560정보 운영", 2012.9.5

## □ 北회령~中싼허 국경다리 보수 완료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와 중국 룡징(龍井)시 싰허(三畝)를 잇는 국경 다리가 전면 보수돼 지난달 말 재개통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신문망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1941년 두만강 유역에 건설돼 북중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상징이 됐은 이 다리는 그동안 급증한 교역으로 다리 상판 등에 이상이 생기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돼왔음.
- 공사 비용은 중국 측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중국 측은 시공업 체에 추가 야간작업까지 요청해 공사기한을 최대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 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RFA가 전함. 회령은 북한 최대 항구 중 하나인 청진항에서 불과 87km 떨어져 있음.
- 북중 양측은 회령~싼허 국경다리 보수를 계기로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교역량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회령~中싼허 국경다리 보수 완료", 2012.9.5

## □ 北, 中에 청진항 개방...3·4호 부두 30년간 임대

- 북한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중국에 개방해 중국의 동해 뱃길 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중국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함.
- 북·중은 이번 계약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700만 톤인 청진항 3·4호 부두를 30년 간 공동 관리·이용하기로 합의했음. 북한 측은 부두(3천180㎡)와 노천화물적치장(4천㎡)의 30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612만유로(약 87억원)를 합작경영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함. 중국 측 투자액은 하역설비, 운수도구, 항만 건설기재 등 943만유로(약 130억원)로, 전체 자본금의 60.46%를 차지함.
- 북·중은 이사회 설립과 이윤 분배, 노동자 관리 등 세부규칙도 정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청진항 합작경영회사의 항구화물운송량을 100만 톤 이상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세움.

- 엔벤펠하이화그룹은 이미 6천만 위안(약 106억8천만원)을 선투자해 청진항에 필요한 기중기 제작과 기중기 궤도 설치, 3만6천㎡의 부두 지면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안에 청진항 기중기 장착을 끝내 국내무역화물 운송과 국제화물 육·해복합운송을 시작할 계획임.

연합뉴스, "北, 中에 청진항 개방...3·4호 부두 30년간 임대", 2012.9.10

#### □ 北, '6·28 新경제관리방침' 10월1일 전면 시행

- 북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당국에서 6·28방침으로 천명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면서 “기업소와 인민반 교양에서 밝힌 6·28방침에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함.
- 6·28방침은 농업에서 생산량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으로 나눠 갖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와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에서 독립채산제(예산 독립제도), 월급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임. 7·1조치가 내세운 ‘실리 사회주의’보다 생산단위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각 단위 경제일꾼을 비롯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임. 그러나 북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나 외부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가 7·1조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지적함.

데일리NK, "北, '6·28 新경제관리방침' 10월1일 전면 시행", 2012.9.10

#### □ 北 황금평경제특구 관리청사 착공식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청사 착공식이 15일 현지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착공식에는 북한 측에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과 평안북도 및 신의주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선 랴오닝(遼寧)성 부성장 등이 참석했음.
- 참석자들은 연설에서 “(북·중) 쌍방이 황금평 경제구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 것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두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연설

에 이어 북·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표식비가 세워짐.

- 앞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의 판쑹(潘爽) 부시장은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간에 황금평 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도로를 비롯한 기초 인프라 건설을 시작했다”며 “15일부터 황금평 개발업무가 정식으로 가동된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北 황금평경제특구 관리청사 착공식”, 2012.9.15

#### □ 中, 北 북동부 4~5개 항구 공동개발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북한 북동부 항구 4~5곳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17일 북·중 양국의 민간기업이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홍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지역 항구 가운데 4~5곳에 대해 공동 개발에 나섰음을 중국 관련 당국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함.
- 앞서 중국 연변일보는 최근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 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이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지난 2008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소재 창리(創立)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바 있음.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이 나진항 4·5·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음.

연합뉴스, “中, 北 북동부 4~5개 항구 공동개발”, 2012.9.17

#### □ 북-러, 채무탕감 위한 정부 협정 체결

-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을 탕감하는 채무 조정에 관한 협정을 17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공화국(북한)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공화국이 러시아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됐다”며 “빚 조정에 관한 북-러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새

로운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앞서 지난 6월 러시아는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 원)의 채무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북러, 채무탕감 위한 정부 협정 체결", 2012.9.18

### □ 북-러 상반기 교역 늘어…작년比 50% 증가

- 올해 상반기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코트라가 수집한 2012년 북러의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측의 수출입 규모는 총 3,8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늘었음. 이중 러시아의 대북수출액이 3,34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3% 증가했고, 수입은 540만 달러로 10.9% 감소했음.
-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연료(29.9%), 철강제품(28.7%), 전자기기(23.6%)였고 철도용 제품도 수출품에 많이 포함됐는데 코트라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의 철도 보수공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코트라는 “2011년 상반기 양측의 교역액이 급감한 탓에 올해 상반기 교역이 증가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교역액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북러 상반기 교역 늘어…작년比 50% 증가", 2012.9.20

### □ 北, 남포·해주·신의주 특구 추가 계획

- 북한이 남포와 해주, 신의주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익명의 북중 소식통과 한국 연구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방중시 남포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보장할 관련 법률 정비나 시장 원리

의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남포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해도 중국 기업이 곧바로 진출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또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에 함경북도 청진과 김책에 대한 투자·개발을 요구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北, 남포·해주·신의주 특구 추가 계획", 2012.9.23

#### □ 北, 농업개혁 추진…곡물 시장거래 허용

-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음.
-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을 따라 군 식량 자급자족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군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북한의 선군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그는 "군에 대해서도 쌀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할 것"이라며 "군도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농업개혁 추진…곡물 시장거래 허용", 2012.9.24

#### □ 올 1~8월 북중 교역 40억 달러…작년 대비 11% 증가

-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통계자료를 인용, 올 1~8월 북중 교역액은 40억2,123만2천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라고 밝힘.
- 이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5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천만 달러 정도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의 대부분은 지하자원으로, 석탄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는 9억1,351만8천 달러로 1위, 철광석이 1억6,093만1천 달러로 2위, 비합금선철이 5,303만9천 달러로 3위를 차지함.

-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원유(4억838만1천 달러)이며, 석유와 역청유(8,621만3천 달러), 20톤 이상 화물차(7,698만3천 달러) 순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올 1~8월 북중 교역 40억 달러...작년 대비 11% 증가", 2012.9.29

#### □ 北 광물자원 수출 10년간 33배 늘어

- 무연탄, 철광석 등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상품인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 규모가 수출액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일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1년 해외 수출한 광물성 생산품(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은 5천만 달러 어치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함. 이 후 광물성 생산품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억4,300만 달러를 수출해 북한 제1의 수출품이 됨.
  - 2010년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액은 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음. 특히 2011년에는 16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8.1% 늘어 전체 수출에서 광물성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2011년 수출된 주요 광물성 생산품은 무연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7,900만 달러, 철광석은 4억500만 달러 등이었음. 무연탄과 철광석은 중국이 거의 100%를 사 갔음.
  - 올해 상반기에도 광물성 생산품의 대중 수출규모는 무연탄 7억4,600만 달러, 철광석 1억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5.7%, 12.7% 늘어 광물성 생산품이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임.
- 연합뉴스, "北 광물자원 수출 10년간 33배 늘어", 2012.10.2

#### □ 美NGO, 北에 새 농사법 전수해 쌀 20% 증산

-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쌀 수확량을 늘리는 새 농사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지원했다는 구호단체 미국친우봉사단은 이 방송에 평안남도에는 있는 4개 협동농장에 새 농사법을 도입해 이전보다 20% 정도 더 많은 쌀을 수확했다며 북한 전역으로 신농법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봉사단의 패트리샤 드보어 아시아지역 국장은 “최근 북한과 기후가 비슷한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북한에 도입했다”며 “1ha당 쌀 1톤을 더 많이 생산했다”고 밝힘.
- 이 봉사단은 북한에 신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매년 약 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드보어 국장은 지난달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한 명씩 선발한 4명을 중국에 보내 온실을 이용한 겨울철 농사법을 배우게 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美NGO, 北에 새 농사법 전수해 쌀 20% 증산", 2012.10.4

#### □ 러시아 정식 취업 北노동자는 2만 명

- 올 상반기 기준 러시아에서 정식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모두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연방이민국이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집계돼 옛 소련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7만6천명), 터키(2만2,5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벌목, 농업, 건설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러시아 아무르 주에서는 벌목 등 임업 분야에 1,500명, 건설 분야에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일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의정서를 조인한 바 있음.  
연합뉴스, "러시아 정식 취업 北노동자는 2만 명", 2012.10.9

#### □ 北 관리들, 유럽서 시장경제·농업 연수

- 북한 관리들이 유럽 서방국가에서 경제 관련 연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협동농장 관계자 7명이 지난달 프랑스에서 염소 사육과 관련한 연수를 받았다고 9일 보도함.

- 프랑스 민간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4개 협동농장에서 선발된 이들은 지난달 프랑스 서부의 되-세브르에 열흘간 머물며 염소 사육 법과 함께 염소 젖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교육을 받았음.
- 이 단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의 7개 농장에서 토끼 사육법을 전수하는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3년 계획으로 황해남도과 평안도에서 염소 목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앞서 북한의 대학과 수출기업, 무역성 관계자 등 25명으로 이뤄진 기업 및 무역 사절단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일 동안 스웨덴을 방문해 기업과 은행 등을 견학하는 등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경제개발’에 대한 연수를 받았음.

연합뉴스, "北 관리들, 유럽서 시장경제·농업 연수", 2012.10.9

#### □ 北, 러시아에 과일·수산물 수출 계획

- 북한이 조만간 과일과 수산물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는 북한이 러시아 연방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에 과일과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예비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수산물 중에서는 꽃게, 생선알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전함.
- 이를 위해 북한 대표단이 다음 달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라티야의 수도인 울란우데 시의 기업이 북한산 과일과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음. 양국의 무역 규모는 2009년 6,168만 달러에서 2010년 1억1,057만 달러로 2배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1억1,281만 달러를 기록함.

연합뉴스, "北, 러시아에 과일·수산물 수출 계획", 2012.10.10

## □ 美 NGO, "대북 친환경 농업전수 올해 마무리"

- 미국의 국제구호단체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친환경 농업 전수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고 밝힘.
-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캐더린 수더만 동북아시아담당관은 12일 “2009년부터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황주군과 황해남도 봉천군의 3개 협동농장에서 진행해 온 친환경 농업 기술 전수 사업을 2012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수더만 담당관은 “기술 지원과 훈련과 농기구 지원에 약 100만 달러가 드는 농업지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대북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년 동안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이르면 내년 말에 새로운 대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 메노나이트는 1995년부터 북한에 식량 지원을 시작했으며, 의료지원과 농업기술 전수 등 다양한 대북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노컷뉴스, "美 NGO, "대북 친환경 농업전수 올해 마무리"", 2012.10.13

## □ 北, 배급제 폐지 실험…독립경영 외투기업 권장

- 북한이 일부 국영기업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이달부터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과거의 명목뿐인 저임이 아닌 월 200~300위안(3만6천~5만4천원)의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부 기업의 임금을 최대 월 800위안(14만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중국인 기업가는 “북한의 경제 개혁 움직임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도 젊은 영도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배급제 폐지 실험...독립경영 외투기업 권장", 2012.10.14

### □ 올 1~8월 북미교역액 1,180만불...작년의 6배

- 올해 들어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18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만 달러)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140만 달러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음. 북한의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없었음.
- VOA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다만 인도적 물품이나 유엔의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승인한 농산품과 의료장비 등은 수출 또는 재수출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올 1~8월 북미교역액 1,180만불...작년의 6배", 2012.10.14

### □ 中 훈춘-北 원정리 新두만강대교 내년 초 착공

-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라고 중국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함.
- 신문은 훈춘시 교통운수국을 인용해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탐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함.
- 새로 건설되는 신두만강대교는 북·중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을 주로 담당하고, 인근에 있는 기존의 두만강대교는 관광·여객운수 통로로 사용할 예정임.
- 한편 북·중은 나선특구에 중국의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 중이며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도 합의해 설계를 위한 지질탐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中 훈춘-北 원정리 新두만강대교 내년 초 착공", 2012.10.15

## □ 北 최대 무산철광, 中과 투자 유치 줄다리기

- 북한 최대 철광인 함경북도 무산철광에 대한 북한과 중국 간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7일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간 최대 생산량이 600만 톤(일평균 1만6,500톤)에 달하는 무산철광은 채굴과 선광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노후화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생산량이 4천톤 가량으로 급감함.
  -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무산철광에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비 투자를 한 뒤 철광석이나 분광을 공급하는 형태의 합작사업(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 단독경영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을 벌여옴.
  - 일부 중국 기업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사업을 마쳤고, 연변지역의 일부 기업은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북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08년부터 제대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짐.
  -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기존의 소규모 투자가 아닌 대대적인 설비 투자인데 중국측도 무산철광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개발권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를 지키려는 북한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연합뉴스, "北 최대 무산철광, 中과 투자 유치 줄다리기", 2012.10.17

## □ 北 최대 무산철광, 中과 투자 유치 줄다리기

-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주민이 7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IFRC가 16일 낸 '2012 세계재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7만7,747명이 재해로 사망했고 이재민은 974만1,515명이었음.
- 보고서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를 지칭하는 '꽃제비' 가운데 중국에 나와있는 수가 1998~1999년 수만 명에서 현재는 1천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또 중국에서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무국적자 신분인 어린이가

1만~1만5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北 최대 무산철광, 中과 투자 유치 줄다리기", 2012.10.17

#### □ 올 1~9월 北주민 취업 방중 6만명...전년비 11% 증가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6만 1,100명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전함.
-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 목적으로 방중한 인원(5만5천명)보다 1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가 그만큼 증가한 셈임.
- 중국 국가여유국은 22일 발표한 '2012년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13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명)에 비해 20.9% 증가함.
-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회의나 사업 목적 방문자는 3만8천400명(28.9%), 관광·레저 목적이 3천400명(2.6%), 친지 방문이 100명 등 순이었음.

연합뉴스, "올 1~9월 北주민 취업 방중 6만명...전년비 11% 증가", 2012.10.23

#### □ 北·베트남, 농업부문 협력 확대 추진

- 북한과 베트남이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키로 하는 등 농업부문 협력을 확대한다고 베트남통신(VNA)이 25일 보도함. 이 통신은 리명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대표단이 전날 하노이에서 하 티 키에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서기와 만나 환담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에 앞서 김영일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도 지난 6월 중순 베트남 북부 타이빙성을 방문, 현지의 농촌 개발 모델을 둘러보는 등 베트남 농업개혁에 적잖은 관심을 보인 바 있음.
- 타이빙성 공산당 짠 깜 뚜 서기는 당시 북한 노동당 대표단에 베트남 정부의 신농촌개발계획(2010~2020년)에 따른 지역발전상을 소개했으며, 김 비서는 베

트남의 올바른 정책으로 농업생산이 확대됐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北·베트남, 농업부문 협력 확대 추진", 2012.10.25

## □ 北-中, 나선특구 관리위 청사 착공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선 특구의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 장안순(張安順) 지린성 연변주당 서기, 전보진 청진주재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함.
- 착공식에서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나선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진위근 중국 지린성 부성장은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중조 나선경제무역지대 협조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밝힘.
- 이날 나진~원정간 도로 개통식도 현지에서 열림. 이 도로의 총 길이는 50여 km이고 너비는 평균 9m(최고 16m)로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훈춘~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고 북중 양국은 지난해 6월 원정리~나진항 도로의 보수착공식을 열고서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넓혀 포장하고 중·소형교량을 놓는 공사를 진행해옴.

연합뉴스, "北-中, 나선특구 관리위 청사 착공", 2012.10.26

## 2. 식량 사정

### □ "7월 배급량 크게 감소...하루 300g선"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1일 북한 당국이 7월 상반기에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 그리고 하반기엔 300g식량을 분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이 같은 배급량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치로 지난 6월 식량 배급량보다 약 20%나 줄었음.
- 북한 당국이 7월에 분배한 300g은 세계식량계획(WFP)의 한 사람에게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에 지나지 않음. 북한의 식량배급이 줄어든 것은 식량난에 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괜찮게 산다던 사람들도 지금은 모두 감자에서 전분을 뽑아내고 남은 섬유질 찌꺼기로 만든 ‘까리국수’를 먹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연합뉴스, "北, "7월 배급량 크게 감소…하루 300g선", 2012.8.2

#### □ 북한에 식량지원 시급(유엔 보고서)

- 최근 쏟아진 폭우로 막심한 피해를 본 북한에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2일 밝힘.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이번 주 초 북한 수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작성해 이날 배포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함.
- 보고서는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곳이 평안남도 안주시와 성천군, 강원도 천내군이라며 식량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또 보고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이들 지역의 가옥과 공공건물, 기간시설이 상당히 손상됐고 옥수수, 콩 경작지와 논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소개함.
-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식량과 연료, 약품, 식수, 정화장치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종자와 비료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에 식량지원 시급(유엔 보고서)", 2012.8.2

#### □ UNDP, "北수해로 식량난 악화되진 않을 것"

- 제롬 소바쥬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논밭에 고인 물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아 작물이 파괴되는 등의 대규모 재난은 아직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식량 공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VOA방송이 7일 보도함.
- 소바쥬 소장은 “홍수피해는 심각하지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재민들이 식량과 식수를 얻고 있어 인도주의 상황은 잘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식량, 깨끗한 식수,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역량 순으로 필요하다”고 말함.
- 그는 또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 ‘긴급구호 요청’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며 “유엔은 북한에 미리 비축해 둔 지원물품이 있고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추가 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홍수가 또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UNDP "北수해로 식량난 악화되진 않을 것"", 2012.8.7

#### □ 北 '새경제관리체계'...국가공무원들도 배급 중단

- 자유아시아방송은 13일 북한 내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간부강연회나 근로단체동맹원들의 해설모임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제부터는 일체의 식량 배급이 없으며, 사무원(국가공무원)들도 식량판매소에서 노동자들과 꼭 같이 식량을 사먹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소식통들은 “교원(교사)이나 보건일꾼들, 당, 행정기관 간부들도 이제부터는 국가예산으로 받는 월급으로 식량판매소들에서 쌀을 사먹어야 한다”며 “대신 국가식량기관과 주변 협동농장, 개인들이 마음대로 식량을 판매할 수 있는 ‘식량판매소’를 지방마다 개방한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다만 북한 당국은 영예군인(상의군인), 사회보장자, 연로보장자들에게 한해서만 그들이 받는 보장연급에 따라 식량을 낮은 가격으로 팔아준다”고 전함.  
노컷뉴스, "北 '새경제관리체계'...국가공무원들도 배급 중단", 2012.8.14

#### □ 北, 옥수수 수확 2주 빨라져...“식량사정 숨통”

- 북한의 올해 가뭄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확이 평년 대비 2주가량 빨라져 당장 일반 주민들의 식량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임.
-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예년 같으면 8월 15일 전후해서야 올강냉이(뜻옥수수)가 나오는데, 올해는 이달 초부터 개인 텃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해 먹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모사리(영양단지를 밭으로 옮기는 단계) 시기에 날씨가 가물어 성장에 지장이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장마 덕에 수분공급이 충분히 됐고, 이후에 해 비추는 시간(일조량)이 좋아 수확량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덧붙임.
- 소식통은 “식량사정이 급해 일찍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밭이 너무 말라 더 이상 놔둘 형편이 못돼 수확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그는 “이 상태로 밭에 그냥 놔뒀다가는 도적을 맞기 쉬워 집집마다 수확 경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올강냉이는 북한 서민들에게 8월 중 중요 식량공급원으로, 이 시기 당장 급한 불을 끄는 효과를 냄. 그러나 북한 남부 지역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추정됨. 올해 봄가뭄으로 서해안 중부지대의 농작물은 피해가 컸음. 북한 당국은 5월 중순 경 봄가뭄 소식을 전하면서 “옥수수의 경우 평당 2, 3 포기가 말라죽었다”고 밝힌 바 있음.

데일리NK, "北, 옥수수 수확 2주 빨라져..."식량사정 숨통", 2012.8.15

#### □ FAO, "北 올해 쌀 수확량, 가뭄 등으로 7% 감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쌀 시장 모니터’에서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도정 전 기준 230만 톤, 도정 후 기준 150만 톤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7%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FAO는 북한에서 벼 파종은 보통 5월에서 6월에 진행되지만 올해는 5월부터 가뭄이 시작돼 파종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수확량 감소의 이유를 설명함. 또 북한의 주요 쌀 재배지역인 황해남도과 평안남북도에서는 이상 고온과 강수량 부족 등이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쌀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FAO는 전망함. 또 감자, 밀, 보리 등 이모작 작물도 가뭄 피해로 수확량이 매우 적다고 통신이 전함.

연합뉴스, "FAO "北 올해 쌀 수확량, 가뭄 등으로 7% 감소"", 2012.8.16

#### □ FAO, "北, 홍수로 가을 작물 5% 피해 입었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2일 발표한 ‘북한 가뭄과 홍수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을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126만 8천ha 가운데 6만 5,282ha가 홍수로 침수되거나 유실됐다”고 전함.
-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농업을 담당 키산 군잘 박사는 21일 “홍수가 일어나면 보통 벼를 재배하는 논이 위치해 있는 저지대가 가장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벼농사 피해가 클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함.
- 군잘 박사는 그러나 “올해 홍수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봄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함. 그

는 “봄 가뭄으로 인해 강내가 파종이 지연됐기 때문에 북한 전체 농경지의 무려 20%에 이른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FAO, "北, 홍수로 가을 작물 5% 피해 입었다", 2012.8.25

#### □ 정부 "北 추곡생산량 60만 톤 감소 추정

-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올해 봄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추곡(秋穀) 생산량이 예년보다 60만 톤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춰보면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하반기 이후 내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함.
-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2013년 양곡 회계연도(2012.11~2013.10)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0만~100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올해 추곡 생산량 감소에다 내년 하곡(夏穀) 생산량과 외부 도입량을 각각 평년 수준인 50만 톤으로 잡았을 때의 추산치임.
- 1kg당 쌀값은 지난 2월 3,100원에서 6월 3,200원, 7월 3,600원, 8월 4,500원을 기록하고 있음. 환율도 2월 1달러당 3,700원에서 5월 4,400원, 6월 4,500원, 7월 4,800원, 8월 6천원 선을 그리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북한의 피해는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인명 피해와 이재민은 다소 많은 것으로 추정함.

연합뉴스, "정부 "北 추곡생산량 60만 톤 감소 추정", 2012.9.4

#### □ 北, 8월 배급량 다소 줄어... "1인당 하루 310g"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4일 “북한 당국이 8월에 쌀 20~30%와 옥수수 70~80%를 섞어 주민 한 명 당 하루 31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힘.
- 스카우 대변인은 “이전 배급에는 여름에 추수한 보리, 감자, 밀 등 이모작 작물도 함께 제공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만 100% 분배된 곳도 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의 8월 배급량 310g은 7월 평균 배급량 335g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1월부터 3월까지 395g을 유지하다가 4월에 400g으로 다소 늘어난 뒤, 5

월에 395g, 6월에 380g으로 계속 줄었음. 8월 배급량 310g은 세계식량계획(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8월 한달 동안 북한 내 164만 8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1만 3,540톤의 식량을 배급했음.

연합뉴스, "北, 8월 배급량 다소 줄어..."1인당 하루 310g", 2012.9.5

#### □ WFP, "北 9월 식량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수준"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310g으로 지난 8월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의 9월 식량배급량은 전년 동기의 200g에 비해 55% 증가한 것이지만, 올 상반기 평균 393g보다는 21% 감소한 것임. 아울러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51.7%에 불과함.
-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3,600톤으로 8월 지원분(1만3,500톤)의 26.7%에 불과한 것에 대해 "수재민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이 (8월에) 끝났고, 올 상반기에 북한에 지원한 곡물 대부분이 8월에 분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WFP "北 9월 식량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수준"", 2012.10.2

#### □ FAO, "北, 식량 부족분 60% 확보"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4일 "북한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확보한 곡물은 43만 1천 톤으로 2012년 10월까지 외부에서 도입해야 하는 곡물 73만 2천 톤의 60%에 이른다"고 전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체 물량 가운데 외부 지원 4만 3천 톤과 수입 38만 8천 톤이며, 외부 지원은 브라질과 스웨덴이 강냉이(옥수수)를, 호주가 밀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했다"고 설명함.
- 또 "북한 당국은 올해 중국으로부터는 쌀을 수입했으며,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유럽연합으로부터는 강냉이(옥수수)를 수입했다"고 말함.
-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

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5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시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6월에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힘.

노컷뉴스, "FAO "北, 식량 부족분 60% 확보"", 2012.10.5

#### □ 유엔, 北 올해 작황조사 "감소 예상"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10일 “유엔의 전문가들이 북한 전역에서 실시한 ‘2012년도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가 지난 8일 끝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나나 스카우 대변인은 “유엔조사단 27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지난달 24일부터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량강도 등 8개 도의 협동 농장을 방문해 작황 자료를 수집했으며, 지난 8일 평양에서 모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했다”고 말함.
-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는 이달 초 발표한 ‘쌀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15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올해 초 극심했던 가뭄으로 올해 작황이 지난해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봄.

노컷뉴스, "유엔, 北 올해 작황조사 "감소 예상"", 2012.10.11

### 3. 가격 추이

#### □ 北 쌀값·환율 지속 상승..주민 불안심리 반영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남.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급등했음.
- 작년 9월 1kg당 2,400~2,500원, 1달러당 2,800~3,000원에 이르던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김 위원장이 사망한 12월에는 각각 4,500원과 5,000원선으로 치솟았음. 이후 올해 2월 1kg당 3,100원, 1달러당 3,700원으로 다소 진정됐던 쌀값과 환율은 다시 상승, 6월에는 3,600원과 4,800원에 이르고 있음. 일부 지방에서는 쌀값이 5천원대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음.

- 식량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6월까지 지속된 가뭄과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중간 도매상들이 확보한 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2009년 단행했던 화폐개혁 실패의 트라우마로 외화 선호 현상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최근 수해까지 겹쳐 북한의 쌀값과 환율 상승 현상은 적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北 쌀값·환율 지속 상승..주민 불안심리 반영", 2012.8.9

#### □ **혜산 쌀값 7천원 돌파...환율·물가 고공 행진**

- 북한 시장 물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음. 28일 북한 혜산 장마당 쌀값은 kg당 7,000원을 돌파했음. 이달 초 5,000원대에서 2천 원 가까이 상승했음. 중국 위안화(元) 환율도 이날 오전 1,100원까지 치솟았음. 북한에서 원위안 환율이 1,000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임.
-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27일 오전 1위안에 860원이던 환율이 오후 들어서자마자 150원이 뛰어 1,010원을 찍었다”면서 “28일에는 다시 1,100원까지 올랐다”고 말함. 원위안화 환율은 올해 초 600원 전후로 출발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함.
- 자연히 쌀 가격도 동반 상승한 상태로 27, 28일 양일에 걸쳐 파악된 북한 쌀 가격은 함경북도 무산 6,000원, 온성 6,500원, 양강도 혜산이 7,000원임. 6월 초에 3천원 대 중반에서 두 배 가까이 올랐음.
- 물가가 폭등하자 주민들은 시장에서 알곡 대신 옥수수 가루나 채소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가뭄과 수해가 반복돼 8월 옥수수 출하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옥수수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인데도 2,000원 대였던 옥수수 가격(kg)이 3,300원까지 상승했음.

데일리NK, "혜산 쌀값 7천원 돌파...환율·물가 고공 행진", 2012.8.28

#### □ **北, 쌀값·환율 폭등..."일부지역 장마당 기능마비"**

- 북한의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앞두고 쌀값과 환율이 폭등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장마당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28일 “이달 26일 청진시 수남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환율이 1,200원으로 치솟으면서 쌀값도 1kg에 7,500원(북한돈)으로 폭등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또 “청진시 사범당국은 다음날 아침부터 장마당을 다시 열었으나 이번에는 시장관리원들을 내세워 입쌀 1kg에 무조건 북한 돈 천원으로 내리도록 했다”고 밝힘. 또, “장마당의 다른 물건들도 천원으로 내린 식량가격에 맞게 모두 내리라고 강요하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인 장사꾼들이 모두 돌아가 장마당은 텅 비게 됐다”고 주장함.
- 환율과 쌀값이 폭등하는데도 주민들이 장마당에 몰리고 있는 것은 2002년 경제개선조치와 화폐개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를 경험한 주민들이 ‘새경제관리체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물건을 미리 사두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노컷뉴스, "北, 쌀값·환율 폭등...“일부지역 장마당 기능마비”", 2012.8.29

#### □ 北 환율 1주만에 44% 폭등...6·28 불안감 확산

-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북한 원위안 환율이 29일 한 때 1,300원을 기록함. 지난주에 비해 400원이 올라 44%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임. 환율은 하루 만에 다소 진정세를 보여 30일 오후에는 1,100원으로 내려갔음.
- 북한 혜산 시장에서 쌀가격은 이날 kg당 6,500원을 기록함. 폭등하던 환율이 다소 주춤하며 물가도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임. 쌀값은 6월 초 3,000원대에서 8월 초 4,000원 초반까지 올랐고, 8월 말에 다시 2,000원이 추가 상승했음.
- 내부소식통은 “주민들은 새로운 경제조치가 발표 되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폭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조치 내용 중에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상품가격을 자유롭게 한다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함.

데일리NK, "北 환율 1주만에 44% 폭등...6·28 불안감 확산", 2012.8.31

#### □ 北, 햇곡식 출하에도 식량가격이 안내리는 이유?

- 북한지역에서 옥수수과 감자 등 햇곡식 출하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은 내리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통은 21일 “장마당에 햇감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이달 20일 현재 감자 1kg의 가격은 북한 돈 1천원, 강냉이는 2천8백원, 쌀은 여전히 1kg에 6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의 경우 올해 일부 큰물과 강풍에 의한 피해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농사사정은 지난해보다는 나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월 1일부터 ‘새경제관리체계’가 시행되고 내륙시대 농사 형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퍼져 식량가격은 내리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함.
- 소식통은 “이와 함께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으로 콩을 밀반출하면서 식량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함.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해결을 위해 두벌농사, 감자농사, 메주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된 메주콩은 밀수꾼들에 의해 대부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설명함.

노컷뉴스, “北, 햇곡식 출하에도 식량가격이 안내리는 이유?”, 2012.9.22

#### □ 北 쌀값 6개월째 올라 역대 최고 수준

-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기대감과 김정은 체제 들어 나타난 급격한 외화 수요 증가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7일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300~2,200원(북한 원화 기준) 올라 각각 6,800원, 6,500원, 6,300원을 기록했음.
- 미국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 역시 전달보다 970~1,260원이 오른 6,370(평양)~6,500원(혜산)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월15~9월21일 북한 주요도시의 쌀값과 환율이 2,300~2,400원과 2,850원~2,9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만에 거의 3배로 상승한 것임.
- 데일리NK는 이에 대해 북한 내에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

면서 쌀을 가진 중개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함. 또 김정은 체제 들어 경공업, 농업 활성화 대책이 본격화돼 외화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옴.

연합뉴스, "北 쌀값 6개월째 올라 역대 최고 수준", 2012.10.7

#### □ 北, 옥수수 본격 출하되자 쌀가격 소폭 하락

- 북한에서 가을 수확이 마무리됨에 따라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가을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0월 말경이 되면 옥수수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려 쌀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함. 계절적 하락 요인이 작용한 것임.
- 그러나 올해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아 하락세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미지수임. 현재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12월 햅쌀 출하에 맞춰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음.
- 양강도 혜산 장마당 쌀값은 1kg에 6,000원 선임.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최근에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kg당 5,500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밝힘. 옥수수는 1kg당 2,000원에 팔리고 있음.
- 1kg당 5,500~6,000원 가격대는 지난 23일 데일리NK가 파악했던 혜산, 신의주 쌀값과 비교해 각각 200원~600원이 하락한 결과임. 올 들어 쌀 가격이 1주 만에 500원 가까이 하락한 것은 처음임. 올해 초 3,500원 수준에서 시작한 쌀값은 10월 한 때 7,000원을 돌파함.

연합뉴스, "北, 옥수수 본격 출하되자 쌀가격 소폭 하락", 2012.10.31

## 4. 홍수, 수해

#### □ 北, 악천우... "주민 88명이 숨지고 134명 부상"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난 18일에서 24일까지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폭우 등으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숨지고 134명이 부상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또 가옥 5천여 채가 모두 부서지거나 부분 파괴됐고, 이재민 6만 2천명이 발생했다고 전함. 통신은 특히 지난 23일과 24일 집중호우로 평안남도 신양군,

성천군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힘.

- 통신은 지난 22일 밤~24일 오전 9시 평안남도 성천군에 365mm, 신양군 276mm, 북창군 260mm, 함경남도 요덕군에 252mm, 수동구(區) 239mm, 평안북도 대관군에 236mm의 비가 내렸다고 전함.
- 지난 20일에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7명이 숨지고 원산시, 문천시에서 상수도망이 완전히 파괴돼 식수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함.  
노컷뉴스, "北, 악천우...주민 88명이 숨지고 134명 부상", 2012.7.29

#### □ 北 "일부 지방 하루에 400mm 폭우"

-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남포시,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방에서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하루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안북도는 442mm의 비가 쏟아진 박천군을 비롯해 운전군(414mm), 향산군(383mm)이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평안남도의 경우 안주시(404mm), 개천시(374mm), 덕천시(361mm) 등이 300mm 이상을 기록했음.
- 또 평안남도 녕원군(258mm), 평안북도 정주시(256mm), 구장군(252mm), 평안남도 맹산군(209mm), 평양시(145mm) 등 20여개 지역이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음.
- 박천군과 정주시, 운전군, 평양시 강남군 등 거의 50개 지역에서 1~3시간 간격으로 폭우 현상이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연합뉴스, "北 "일부 지방 하루에 400mm 폭우"", 2012.7.30

#### □ 北 홍수 피해 유엔 조사단 31일 방북

- 최근 북한에 집중된 큰비와 태풍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이 31일 방북한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가 30일 밝힘.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18~24일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폭우 등으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음.

-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태풍 `카눈'으로 7명이 사망하고 농지가 침수됐다고 보도함. 북한이 이처럼 수해 관련 피해상황을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외부지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음.

연합뉴스, "北 홍수 피해 유엔 조사단 31일 방북", 2012.7.31

#### □ 유엔 "북한, 홍수 피해 복구 지원요청"

- 최근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3일(현지 시간) 밝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이 홍수 피해지역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식량과 연료의 긴급 지원을 지난달 30일 요청해왔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직원들로 구성된 2개의 평가팀은 홍수 피해가 큰 강원도 천내군과 평안남도 성천군, 안주시 등을 둘러봤음. 평가팀은 논밭과 콩 재배지 등이 크게 손상됐지만 현재로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임. 아울러 별도의 피해 조사팀이 꾸려져 수개월내 파견될 예정임.
- 북한은 7월 18-29일 간 집중 호우로 농작물과 건물, 도로, 교량 등에 피해를 봤음. 북한은 이 홍수로 88명이 숨지고 6만2,889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음.

연합뉴스, "유엔 "북한, 홍수 피해 복구 지원요청"", 2012.8.3

#### □ 北 "홍수로 169명 사망...400여명 실종"

- 최근 평안도와 자강도 등지를 몰아친 집중 호우로 북한 주민 56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수해피해 집계 자료를 인용해 6월 말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달 간 태풍과 폭우에 의한 큰물(홍수)로 169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도 400여명에 달한다고 전함.
- 이밖에 8,600여 동의 살림집(주택)이 파괴되고 4만 3,700여 세대가 침수돼 21만 2,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농경지는 6만 5,280여 정보가 유실되거나 매몰·침수됐으며 지역별로는 평안북도(2만3천여 정보), 평안남도(2만1천여 정보), 함경북도(7,220여 정보), 함경남도(5,600여 정보) 순으로 피해가 심했음.

연합뉴스, "北 "홍수로 169명 사망...400여명 실종"", 2012.8.4

## □ 북한 지난달 40년來 최다 강수량

- 지난달 북한에 40년만의 큰 비가 내려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53.0mm로 관측 자료가 확보된 1973년 이후 7월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음. 이는 평년 238.3mm의 148%에 해당하는 양임.
  - 지역별 강수량은 안주 574.6mm, 평양 480.8mm, 함흥 419.5mm, 김책 412.7mm, 사리원 396.1mm 등이었음. 개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비가 많이 왔고 안주 등 평안남북도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특히 18~20일 황해도와 동해안 지역, 22~24일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집중호우 쏟아졌음. 29~30일에는 평안남북도에 또 400mm 안팎의 큰 비가 왔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은 중순부터 장마전선과 저기압, 제7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을 잇따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연합뉴스, "북한 지난달 40년來 최다 강수량", 2012.8.7

## □ 북한도 최고 300mm 이상 폭우...추가 수해 우려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 지역에 15일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서 추가 수해가 우려됨.
- 개성시가 309mm(14일 오후 3시~15일 오후 3시)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보였음. 이밖에 황해북도 장풍군이 211mm, 강원도 세포군 155mm, 고산군 132mm, 평강군 138mm, 이천군 126mm, 함경남도 리원군 138mm, 함경북도 김책시 107mm, 평안남도 성천군 104mm, 황해남도 연안군 113mm, 배천군 106mm 등임. 또 15일 오전 3시~6시 북청군에 63mm, 오전 6시~9시 김책시에 56mm, 오전 9시~낮 12시 개성시에 162mm, 배천군 55mm의 비가 내렸음.
- 지난달 22일 밤~24일 오전 9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등지에 100~365mm의 비가 집중되면서 철도가 유실되고 인명 피해가 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최근 주민과 군인, 중앙기관 등을 동원해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벌여왔음.

연합뉴스, "북한도 최고 300mm 이상 폭우...추가 수해 우려", 2012.8.15

#### □ 태풍 블라벤, 北 폭우·강풍 피해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오후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조선의 여러 지방에서 적지 않은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황해남도에서는 강풍과 폭우에 8,500여 정보의 농경지에서 옥수수대가 꺾이고 600여 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졌으며 여러 동의 공공건물 지붕이 파손됐음. 1정보는 약 9,917㎡로 황해남도의 농경지 피해는 대략 84km<sup>2</sup>에 달함.
- 남포시에서는 60여 정보의 밭에서 옥수수대가 꺾이고 여러 대의 전주가 넘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었음. 평안남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에서도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봤고 500여 그루의 가로수들이 넘어졌을 뿐 아니라 많은 주택과 도로도 침수·파괴됐고 여러 곳의 간선철도도 산사태로 파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연합뉴스, "태풍 블라벤, 北 폭우·강풍 피해", 2012.8.29

#### □ 北, 태풍 '블라벤'으로 48명 사망

- 최근 북한을 통과한 15호 태풍 '블라벤'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48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조선중앙통신은 3일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2일 현재 사망자수는 48명, 부상자와 행방불명자수는 50여 명”이라며 “전국적으로 6,700여 세대(가구)의 살림집(주택)이 완전 및 부분 파괴·침수되고 2만 1,180명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 북한 전역에서 5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으며 1만 6,730여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고 880여 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전함.

연합뉴스, "北, 태풍 '블라벤'으로 48명 사망", 2012.9.3

#### □ 北 올해 수해 인명피해 1995년 이후 두번째 규모

- 북한에서 올해를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된 주민이 약 800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는 1995년 이후 북한에서 수해로 발생한 인명피해 중 두 번째 큰 규모임.

- 4일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보도한 수해 집계에 따르면 우선 6월 말~7월 말 폭우로 사망한 주민은 총 169명이었음. 또 144명이 부상했고 실종된 주민도 400명 안팎에 달함. 또 최근 북한을 관통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48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하거나 행방불명됨.
- 올여름 발생한 비와 강풍으로 부분·완전 파괴된 주택은 1만5천여 채로 파악됨. 이 때문에 총 23만 3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 농경지는 11만 5천여 정보(1천140km<sup>2</sup>)가 침수·유실 등의 피해를 봤음.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6배에 해당함. 연합뉴스, "北 올해 수해 인명피해 1995년 이후 두번째 규모", 2012.9.4

#### □ 北 "수해로 300명 사망·이재민 29만명"

- 북한이 올여름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9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종합된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수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300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부상 또는 실종됐으며 살림집(주택) 8만7천280여 가구의 파괴·침수, 이재민 29만8천5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 농경지 피해도 12만3천380여 정보나 되고 공공 및 생산건물 2천690여 동과 교육 및 보건부문 건물 350여 동이 파괴됐음. 또 상수도망 92개소와 오수망 40개소, 소금밭(염전) 1천300여 정보가 못쓰게 됐고 가로수 1만6천900여 그루가 넘어졌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임.
- 전력부문의 경우 송전선 131km과 전력케이블 160여km가 유실됐으며 석탄부문에서는 50여 개소의 갱이 침수 또는 붕괴했고 채탄장 및 굴진막장 180개소가 침수됨. 이밖에 철길 노반 1만7천150 여m<sup>2</sup>가 유실되고 철길 300여 개소가 파묻히는 피해도 있었음.
- 특히 중앙통신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지난달 28일과 29일 북한 전역을 휩쓸면서 사망자 59명과 실종자 50명이 발생했고 유명한 광산이 있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사망 34명·실종 42명)는 피해가 가장 컸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北 "수해로 300명 사망·이재민 29만명"", 2012.9.13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6,879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816만 달러에 비해 13.9% 증가(전월 16,333만 달러 대비 3.3% 증가)
- 반입은 8,80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485만 달러에 비해 17.6% 증가(전월 8,409만 달러 대비 4.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0%, 전자전기제품 34.8%, 생활용품 8.7%, 기계류 6.7%, 화학공업제품 3.2% 등임.
- 반출은 8,07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332만 달러에 비해 10.1% 증가(전월 7,924만 달러 대비 1.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8%, 전자전기제품 30.4%, 생활용품 6.7%, 기계류 8.8%, 화학공업제품 6.7% 등임.

####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0.2만 달러로 전월 63.8만 달러 대비 10.0%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입액 8,805만 달러의 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4.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32.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3.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4%)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7.4만 달러로 전월 223.8만 달러 대비 1.6%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출액 8,074만 달러의 2.8%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01.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5%), 분유 등 축산물이 10.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2.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7,10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422만 달러에 비해 18.6% 증가(전월 16,879만 달러 대비 1.3% 증가)
- 반입은 9,15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690만 달러에 비해 19.1% 증가(전월 8,805만 달러 대비 4.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1.3%, 전자전기제품 37.3%, 생활용품 8.1%, 기계류 5.7%, 화학공업제품 3.6% 등임.
- 반출은 7,94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733만 달러에 비해 18.1% 증가(전월 8,074만 달러 대비 1.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5%, 전자전기제품 31.7%, 생활용품 6.1%, 기계류 7.3%, 화학공업제품 6.4%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8.1만 달러로 전월 70.2만 달러 대비 11.3% 증가하고 8월 전체 반입액 9,155만 달러의 0.9%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9.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25.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3.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17.5만 달러로 전월 227.4만 달러 대비 39.6% 증가하고 8월 전체 반출액 7,949만 달러의 4.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인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2.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2%), 분유 등 축산물이 5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 합판 등 임산물이 4.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8.9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7,638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833만 달러에 비해 18.9% 증가(전월 17,104만 달러 대비 3.1% 증가)
- 반입은 9,84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906만 달러에 비해 24.6% 증가(전월 9,155만 달러 대비 7.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6%, 전자전기제품 37.0%, 생활용품 7.7%, 기계류 5.7%, 화학공업제품 3.5% 등임.
- 반출은 7,78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927만 달러에 비해 12.4% 증가(전월 7,949만 달러 대비 2.0%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4%, 전자전기제품 33.4%, 화학공업제품 7.1%, 기계류 6.7% 생활용품 5.3%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69.3만 달러로 전월 78.1만 달러 대비 12.7% 증가하고 9월 전체 반입액 9,849만 달러의 0.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50.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5.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07.2만 달러로 전월 317.5만 달러 대비 3.2% 감소하고 9월 전체 반출액 7,788만 달러의 3.9%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88.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7%), 분유 등 축산물이 1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3.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2.0달러(전체 반출액의 0.03%)를 차지했음.

표 1. 2012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7,831	341	0.4	농산물	723,181	2,014	2.5
참깨	29,060	105		쌀	1,190	3	
들깨	9,100	28		감자	145	0	
기타채유종실	640	2		대두	7	0	
고추	0	0		밀가루	3,979	3	
밤	34,000	109		참깨	32,444	109	
참기름	7,578	38		들깨	12,460	34	
들기름	9,895	39		기타채유종실	41,000	83	
기타유지가공품	2,926	7		복숭아	19	0	
박류	22,000	1		자두	9	0	
기타소스류	2,352	6		수박	1,005	1	
제조담배	280	6		멜론	9	0	
인삼류	0	0		상추	14	0	
빵	0	0		시금치	14	0	
				파	140	0	
				고추	3,218	21	
				기타채소	80	0	
				밤	63,200	95	
				기타산식물	1,200	0	
				대두유	6,876	9	
				들기름	6,600	31	
				기타식물성유지	25	0	
				기타유지가공품	3,150	2	
				고추장	34	0	
				기타소스류	2,802	5	
				향신료	363	1	
				커피	5	0	
				커피조제품	5,115	35	
				코코아조제품	54	0	
				녹차	40	0	
				제조담배	1,750	69	
				소주	3,550	4	
				맥주	5,580	5	
				정당	209	0	
				물	7,276	14	
				음료베이스	5	0	
				과일주스	30	0	
				기타음료	182	0	
				빵	204,179	691	
				면류	76,920	262	
				기타농산가공품	237,008	502	
				증자류	2	0	
				건	600	30	

(앞면에서 계속)

품목	반 입			품목	반 출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24,382	106	0.1
				소시지	21,355	91	
				로알제리	1,770	11	
				기타낙농품	1,189	4	
				난류	68	0	
임산물	37,280	37	0.04	임산물	22,219	24	0.03
건축용목제품	37,280	37		합판	1,850	4	
기타목재류	0	0		단판	20	0	
				섬유판	16,820	13	
				건축용목제품	205	0	
				기타목재생활용품	24	0	
				기타목재류	300	0	
				수목류	3,000	6	
수산물	261,596	324	0.4	수산물	270,062	130	0.2
기타조개	32,096	99		미역	270,062	130	
툰	0	0					
미역	229,500	226					
합 계	416,707	702	0.8	합 계	1,039,844	2,274	2.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3호(2012.7.1~7.31)

표 2. 2012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2,439	493	0.5	농산물	809,901	2,527	3.2
참깨	45,200	180		쌀	3,918	7	
들깨	19,100	63		감자	180	0	
고추	3,150	23		대두	6	0	
밤	28,900	92		밀가루	6,414	5	
참기름	13,358	76		참깨	73,830	235	
들기름	11,932	41		들깨	30,500	66	
기타유지가공품	6,399	17		기타채유종실	14,800	26	
박류	14,400	0		사과	9	0	
				복숭아	9	0	
				자두	5	0	
				포도	9	0	
				수박	80	0	
				상추	16	0	
				시금치	12	0	
				토마토	5	0	
				파	165	0	
				고추	24	0	
				기타채소	75	0	
				밤	38,400	58	
				대두유	5,868	11	
				들기름	8,250	31	
				빵제조용재료	2,268	72	
				된장	1	0	
				고추장	46	0	
				기타소스류	5,984	20	
				향신료	291	1	
				커피	7	0	
				커피조제품	17,463	73	
				홍차	25	0	
				제조담배	600	20	
				소주	2,270	3	
				맥주	5,340	5	
				위스키	502	72	
				기타주류	392	1	
				정당	168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물	7,006	3	
				과일주스	7	0	
				기타음료	75	0	
				비스킷	5	0	
				곡류가공품	79	0	
				빵	246,889	857	
				면류	106,030	354	
				기타농산가공품	231,078	570	
				종자류	200	4	
				견	600	31	
축산물	-	-	-	축산물	40,814	518	0.7
				닭고기	14	0	
				소시지	24,428	148	
				꿀	1	0	
				로얄제리	2,042	9	
				우유	16	0	
				분유	12,640	356	
				발효유	2	0	
				기타낙농품	1,371	4	
				난류	300	1	
임산물	12,850	35	0.04	임산물	25,709	40	0.05
건축용목제품	3,200	3		합판	6,950	10	
기타목재류	9,650	33		섬유판	8,997	8	
				건축용목제품	6,139	14	
				기타목재생활용품	123	0	
				천연고무	3,500	8	
수산물	163,284	253	0.3	수산물	94,761	89	0.05
기타조개	53,208	155		톳	3,300	46	
미역	110,076	98		미역	91,461	43	
합 계	318,573	781	0.9	합 계	971,185	3,174	4.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4호(2012.8.1~8.31).

표 3. 2012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1,332	506	0.5	농산물	1,835,336	2,886	3.7
참깨	37,310	160		쌀	5,066	11	
들깨	12,630	48		밀가루	1,003,484	425	
고추	1,740	11		참깨	41,520	130	
밤	60,900	195		들깨	30,390	89	
참기름	6,277	44		사과	9	0	
들기름	6,683	37		바나나	858	1	
기타유지가공품	4,592	12		포도	9	0	
박류	11,200	0		고추	1,895	10	
				기타채소	1	0	
				기타화초	1,105	5	
				밤	132,000	198	
				기타산식물	17,399	58	
				대두유	5,868	11	
				들기름	1,650	12	
				기타식물성유지	40	0	
				기타유지가공품	1,728	5	
				간장	50	0	
				기타소스류	7,831	24	
				향신료	326	1	
				커피조제품	20,684	82	
				녹차	7	0	
				홍차	24	0	
				제조담배	1,180	67	
				인삼류	100	12	
				소주	3,950	5	
				맥주	5,460	5	
				위스키	2,067	130	
				기타주류	78	0	
				정당	1,901	10	
				물	3,210	2	
				기타음료	480	2	
				비스킷	10	0	
				곡류가공품	22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빵	180,075	655	
				면류	126,910	389	
				기타농산가공품	237,349	517	
				견	600	31	
축산물	-	-	-	축산물	24,922	129	0.2
				소시지	21,044	111	
				로얄제리	2,521	14	
				기타낙농품	1,357	4	
임산물	9,100	51	0.05	임산물	37,636	36	0.05
제재목	2,700	10		합판	3,531	10	
기타목재류	6,400	41		섬유판	14,330	10	
				건축용목제품	460	3	
				기타목재생활용품	3	0	
				기타목재류	192	1	
				수목류	19,120	11	
수산물	147,909	135	0.1	수산물	1,700	20	0.03
기타조개	49,020	41		김	1,700	20	
미역	98,889	94					
합 계	298,341	693	0.7	합 계	1,899,594	3,072	3.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5호(2012.9.1~9.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소계	230,452	803	8,062,841	252,166	1,090	8,258,261	16,321,102	195,420
2012.1	2,743	188	77,575	3,382	410	65,857	143,432	△11,718
2012.2	2,809	179	81,106	3,519	414	69,507	150,613	△11,599
2012.3	3,147	203	91,478	3,746	412	73,259	164,737	△18,219
2012.4	2,719	193	82,861	3,249	408	60,422	143,283	△22,439
2012.5	3,081	207	93,358	3,835	431	75,456	168,814	△17,902
2012.6	2,965	201	84,086	3,819	442	79,244	163,330	△4,842
2012.7	3,024	202	88,045	3,885	434	80,744	168,789	△7,301
2012.8	3,079	186	91,548	3,880	446	79,494	171,042	△12,054
2012.9	3,164	208	98,491	3,888	452	77,884	176,375	△20,607
소계	26,731	353	788,547	33,203	670	661,867	1,450,414	△126,680
총계	257,183	811	8,851,388	285,392	1,095	8,920,128	17,771,516	68,740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5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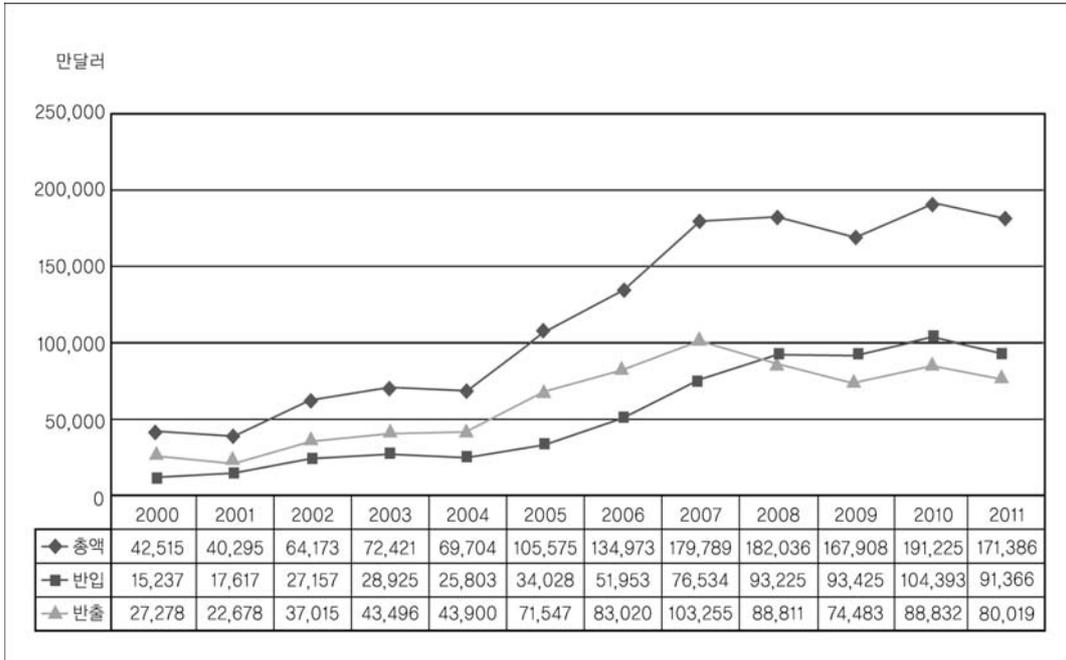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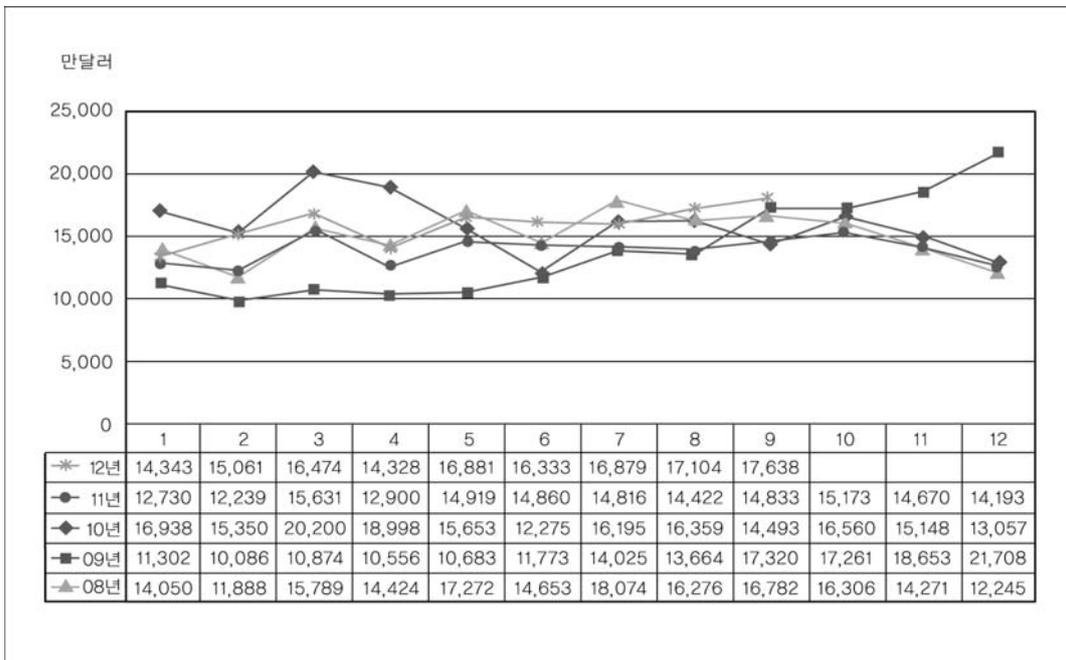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Δ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Δ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Δ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Δ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Δ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Δ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Δ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Δ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Δ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Δ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Δ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Δ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Δ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Δ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Δ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Δ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Δ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Δ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Δ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Δ46,963
2011	3,343	-	0	2,770	8,418	31,931	641	318	2,167	27,467	35,885	19,049
소 계	517,879	3,317	51,145	1,023,544	1,598,210	969,558	26,662	29,742	27,642	1,046,103	2,644,313	Δ399,565
2012.1	321	-	-	71	392	1,948	12	12	25	1,997	2,389	1,605
2012.2	273	-	-	26	299	1,754	37	42	263	2,097	2,396	1,798
2012.3	295	-	-	125	420	2,500	31	62	318	2,911	3,331	2,491
2012.4	311	-	0	124	436	1,742	22	70	237	2,070	2,506	1,634
2012.5	359	-	0	187	546	2,352	353	767	285	3,758	4,304	4,304
2012.6	326	-	5	307	638	1,979	72	17	170	2,238	2,876	1,600
2012.7	341	-	37	324	702	2,014	106	24	130	2,274	2,976	1,572
2012.8	493	-	35	253	781	2,527	518	40	89	3,175	3,956	2,394
2012.9	506	-	51	135	693	2,886	129	36	1,700	3,072	3,765	2,379
소 계	3,225	-	128	1,552	4,907	19,702	1,280	1,070	3,217	23,592	28,499	18,685
총 계	521,104	3,317	51,273	1,025,096	1,603,117	989,260	27,942	30,812	30,859	1,069,695	2,672,812	Δ380,88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3~255,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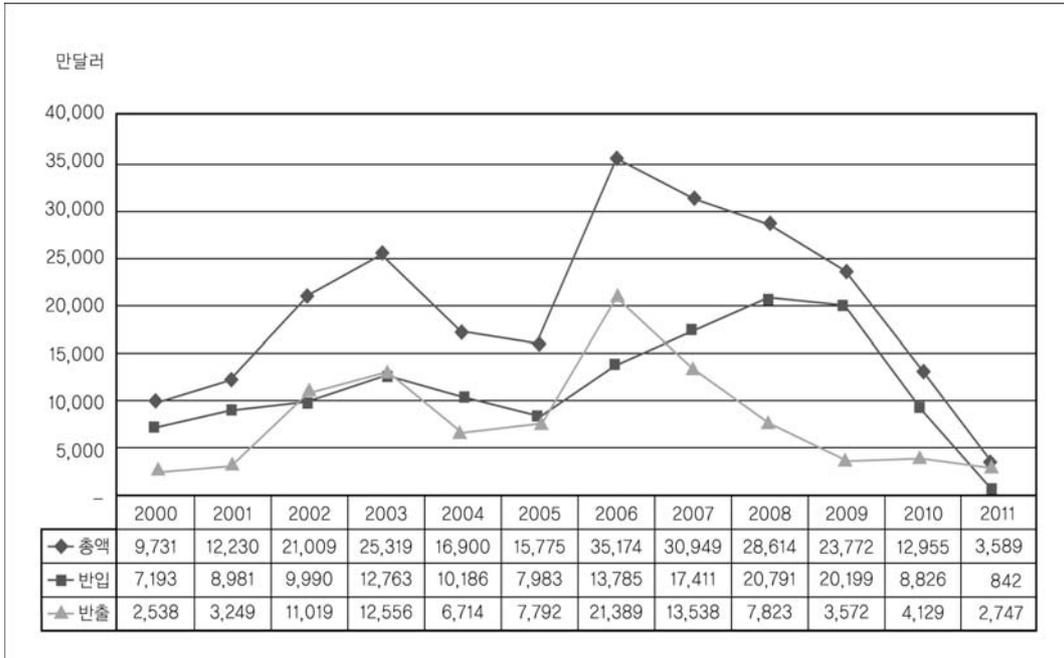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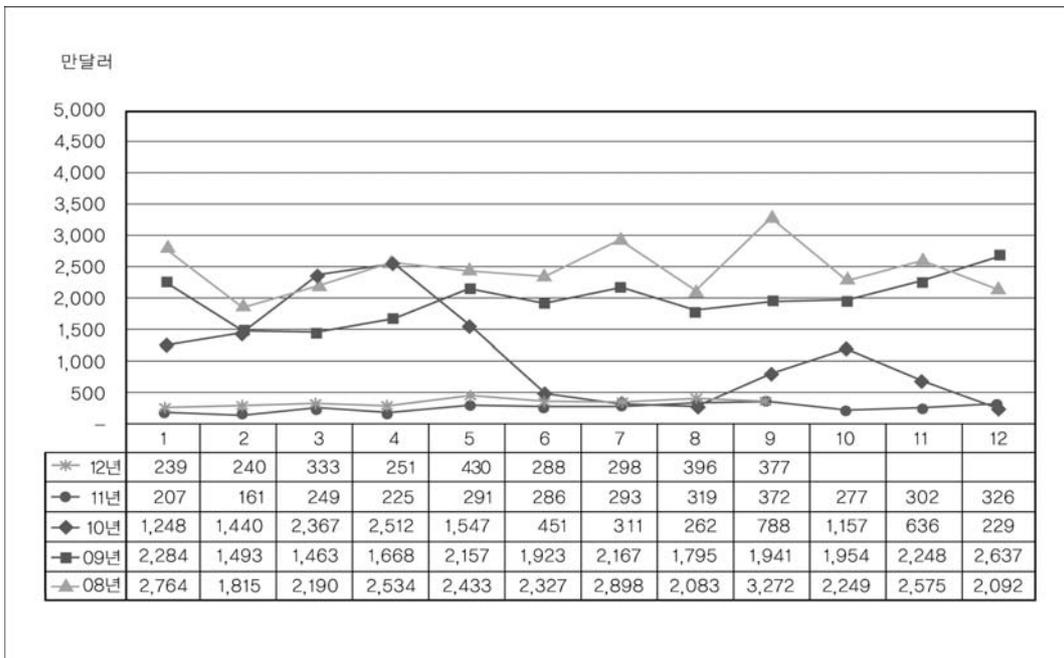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2. 대북지원 동향

### 한적, 국제적십자사 통해 10만 달러 대북 수해 지원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수해를 입은 북한에 10만 달러(1억 1천여 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힘.
- 한적 관계자는 “IFRC는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수해와 재난 대비를 위해 최근 한적의 참여를 요청해왔다”며 “이에 따라 한적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구호물자 구입에 필요한 10만 달러를 IFRC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이번 대북 수해 지원금은 그동안 한적에 지정기탁한 ‘북한동포돕기성금’으로 충당했다”며 “IFRC가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배정한 30만 스위스 프랑(31만 달러)과는 별개”라고 강조함.
- 한적은 “20일이나 21일 IFRC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며 “IFRC는 한적의 이번 지원금으로 텐트, 위생도구, 취사도구 등 구호품 세트를 직접 구입해 북한 적십자회와 함께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설명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한적, 국제적십자사 통해 10만 달러 대북 수해 지원" 2012. 8. 20)

### 한국JTS, 北 수해 지원 밀가루 500톤 전달

- 국제구호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범륜)는 지난 18일 인천항을 통해 최근 태풍과 홍수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밀가루 500톤을 보냈다고 20일 밝힘.
- 인천항에서 선적된 밀가루는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 평안남도 성천군에 200톤, 평안북도 안주시에 300톤이 각각 지원될 예정임. 성천과 안주는 올해 수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임.
- 이번 밀가루 지원은 북한이 올여름 수해를 입은 후 올해 처음 이뤄진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임. JTS 관계자는 “추후 우리 단체의 모니터 요원이 북한을 방문해 이번 지원물자의 분배 결과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한국JTS, 北 수해 지원 밀가루 500톤 전달" 2012. 9. 20)

## □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육로 전달

- 올여름 북한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밀가루를 육로를 통해 북측에 직접 전달함.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 500톤 전달을 위한 환송식을 열었음.
- 25톤 트럭 20대에 실린 밀가루는 오전 10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북한의 개성 봉동역에 하역됐고, 올여름 수해가 가장 심했던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임.
- 밀가루 500톤은 수해 지역 어린이 2만 명이 하루 500g씩 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안주와 개천의 유치원 및 소학교 35개를 통해 분배된다고 월드비전이 설명함.
- 양호승 회장은 환송식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밀가루를 보낸 뒤 북측과 이미 합의한 것처럼 현장에 가서 배분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육로 전달" 2012. 9. 21)

## □ 북민협, 北에 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전달

- 국내 55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5일 북한에 수해지원용 밀가루 500톤(2억 6천 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전달함.
- 북민협이 이번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는 밀가루 500톤은 25톤 트럭 20대에 실려 이날 오전 10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북한의 개성 봉동역에 하역된 뒤 평안남도의 수재민에게 분배될 예정임.
- 이번 밀가루는 북민협 회원단체인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남북평화재단, 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재단, 평화3000, 한국JTS 등에서 마련한 것임. 북민협이 계획했던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1천 톤 가운데 1차 지원분임.

- 이날 밀가루 전달을 위해 강영식 북민협 운영위원장과 이운식 민화협 사무처장, 김기진 한국JTS 공동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등 11명의 대표단이 방북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m/> (연합뉴스, "북민협, 北에 수해지원 밀가루 500톤 전달" 2012. 10. 5)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2012.9.18)

-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

#### 〈 주요 개정 내용 〉

- ①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 공익적 성격의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교역사업 및 대상 물품등에 대한 안내·지원
    - 행정절차 혹은 대북교섭의 대행
    - 북측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 ②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대상 명확화
  - 남북교역의 특성상 가변적인 업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 ③ 금전이동의 제도적 보장
  - 남북간 이전성 금전의 지급·수령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④ 기존 인도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요건 완화
  - 인도지원사업자 제도는 그간 고시에 근거를 두고 지정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등록제로 요건을 완화

#### □ 기업에 대한 긴급운영경비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통일부, 2012.9.18)

- 정부는 9.7~13일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남북교역·정협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의결하였음.
- ① 남북교역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남북교역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남북교역 관리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중임.
    - 남북교역 업체 상담 및 지원, 남북간 물품 반출입 상황 관리, 남북교역 실태

조사·분석 등임.

\* 1차년도('09.9~'10.9), 2차년도('10.10~'11.10), 3차년도 진행 중('11.11~'12.10)

- 남북교역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남북교역 관리업무」를 위해 15억4,6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함.
- 사업내역 : 위탁사업비 1,105백만원, 위탁수수료 275백만원, 부대비용 138백만원, 사업관리비 28백만원

② IVI의 북한 어린이 백신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북한의 전염병 예방 및 백신능력 배양을 위해 IVI(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07년 50만불, '08년 19만불, '09년 30만불(총 99만불)

- IVI를 통한 백신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급성뇌염(AES)과 설사질환의 예방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24억7천2백만원(2,098,825달러 포함)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함.
- 지원내역 : 일본뇌염 백신접종 1,236,801달러, 북한 의료인력 교육 303,194달러, 설사병 예방 177,864달러, 급성뇌염 감시·임상시험 163,764달러, 평가회의 26,400달러, 간접비 190,802달러, 사업관리비 16백만원 등

③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 정부는 5.24조치('10.5.24)와 금강산 관광 중단('08.7.12)으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경협기업들에 대해 그 동안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음.

\*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221개 기업에 569억원 대출 등

- 최근 경협중단 장기화로 교역·경협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75억원을 배정하여, 기업별로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2.10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sup>1)</sup>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sup>2)</sup>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0	-	9,751	-	유엔기구 5,084, 이월자금 4,09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628, , 스웨덴 423, 노르웨이 264, EU집행위원회 209 등
총 계	-	198,011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ober 31, 2012)

표 2. 2012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0.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German Agro Action	독일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독일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소계 2,344,912	
FAO	CERF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스웨덴	893,123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개선
	이탈리아	212,912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EU인도지원국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5,388,931		
국제적십자연맹	스위스	544,070	인도지원
적신월사	캐나다	19,920	NFLs, WASH (M013356)
	캐나다	30,272	태풍 불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소계 50,192	
노르웨이적십자사	노르웨이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독일적십자사	독일	248,756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스웨덴적십자사	스웨덴	2,360,259	의약품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스웨덴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8,758	유아원 지원
Save the Children	덴마크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독일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EU인도지원국	153,526	홍수 긴급지원(ECHO/DRF/BDU/2012/92013)
		소계 398,517	
스웨덴 민간구호기구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MSB)	스웨덴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프랑스	173,913	유아원 지원
	프랑스	77,792	강원도 지역 태풍 피해 지원
		소계 510,103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German Agro Action	독일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독일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소계 2,344,912	
UNICEF	CERF	400,726	홍수피해 긴급 구호 지원 (CERF 12-CEF-98)
	CERF	1,225,000	94개 군/동 생명구호 지원 (12-CEF-003)
	CER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 (M013666)
	한국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민간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소계 6,522,855		
UNPF	UNFPA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CER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UNFPA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CERF	150,000	모성 안전
	소계 1,197,199		
미분류 지원	스위스	204,082	홍수 피해자 긴급 구호 (7F-08508.01)
	스위스	622,449	WASH 프로그램 (7F-07222.01)
	이탈리아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한 긴급구호활동 조정, 기술지원, 모니터링 활동 지원
	소계 1,149,512		
WFP	아일랜드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이월자금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미분류	4,10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민간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노르웨이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룩셈부르크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PRRO 200114)
	캐나다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캐나다	2,988,04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CERF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중국	1,000,000	북한 남부지역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68,205,354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HO	이월자금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GAVI연합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CERF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한국	4,390,002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긴급 서비스
	여러단체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7,029,996	
합 계		97,508,821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ober 31, 2012)

표 3. 2012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0.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이탈리아	FAO	212,912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CERF	FAO	1,98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FAO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스웨덴	FAO	893,123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개선
	EU인도지원국	FAO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5,388,931	
조정 및 지원서비스	스웨덴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이탈리아	여러단체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한 긴급활동 조정 지원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 (PRK-12/0001)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소계 2,475,641	
식량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CERF	WFP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독일	GAA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프랑스	TGH	173,913	유아원 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8,758	유아원 지원
	중국	WFP	1,000,000	북한 남부지역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3,341,382	
보건	CERF	WHO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CERF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CERF	UNP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캐나다	UNICE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캐나다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캐나다	WFP	2,988,04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보건	스웨덴	Handicap International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노르웨이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아일랜드	WFP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룩셈부르크	WFP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PRRO 200114)
	민간	WFP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민간	UNICEF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한국	UNICEF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한국	WHO	4,390,002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GAVI연합	WHO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여러단체	WHO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WFP미분류	WFP	4,10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UNFPA	UNPF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UNFPA	UNPF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WHO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이월자금	WHO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WHO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81,330,269	
물과 위생	CERF	UNICEF	400,726	홍수피해 긴급지원(CERF 12-CEF-98)
	스위스	여러단체	622,449	WASH 프로그램(7F-07222.01)
	프랑스	TGH	77,792	가원도 태풍피해 인프라 복구
	독일	독일적십자사	248,756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소계 1,349,723	
미분류	EU인도지 원사무국	Save the Children	153,526	홍수지역 긴급지원 (ECHO/DRF/BUD/2012/92013)
	스위스	여러단체	204,082	2012년 7월 홍수 피해 희생자 긴급지원
	캐나다	적십월사	30,272	태풍 볼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캐나다	적십월사	19,920	NFLs, WASH (M013356)
	독일	GAA	220,588	평안북도 홍수피해자 인도지원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사	2,360,259	의약품 지원
			소계 3,622,875	
합 계			97,508,821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ober 31, 2012)

표 4. 2012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0.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12-FAO-001)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12-WHO-004)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UNP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WFP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UNICEF	400,726	홍수피해 긴급 구호 지원 (CERF 12-CEF-98)
	WHO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소계	12,920,667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HO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WHO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40,969,453	
미분류	WFP	4,102,04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UNPF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UNPF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소계	5,084,241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캐나다	UNICE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적신월사	19,920	NFLs, WASH (M013356)
	적신월사	30,272	태풍 볼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WFP	2,988,04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7,987,689	
중국	WFP	1,000,000	북한 남북지역 홍수피해 희생자 지원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EU집행부	Save the Children	153,526	홍수 긴급지원(ECHO/DRF/BDU/2012/92013)
	FAO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2,091,510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TGH	173,913	유아원 지원
	TGH	77,792	강원도 지역 태풍 피해 지원
	Premiere Urgence	198,758	유아원 지원
	소계	708,861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GAA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GAA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독일적십자사	248,756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소계 1,833,604	
아일랜드	WFP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이탈리아	여러단체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하여 운영중인 긴급구호활동 조정, 기술지원, 모니터링 지원
	FAO	212,912	2012년 가을 취약농가 긴급식량지원
		소계 535,893	
한국	WHO	4,390,002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UNICEF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소계 8,264,704	
룩셈부르크	WFP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2,639,831	
스웨덴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FAO	447,668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FAO	893,123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증진
	스웨덴적십자사	2,360,259	의약품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소계 4,230,458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여러단체	204,082	2012년 7월 홍수피해자 긴급구호
	여러단체	622,449	WASH 프로그램
		소계 6,281,380	
민간	WHO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UNICEF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WFP	4,44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소계 206,457	
여러단체	WHO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합 계		97,508,821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ober 31, 2012)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 가. 국제기구

#### 국제적십자사 "北 수해지원 30만 달러 배정"

- IFRC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가 수해를 입은 2,500가구, 주민 1만 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0만 스위스 프랑(약 30만8천 달러)을 책정했다”고 밝힘.
- IFRC는 지난 3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수재민들에게 앞으로 3개월간 임시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박막과 이불, 주방 기기, 수질 정화제, 위생 용품 등을 제공할 계획임.
- 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긴급기금과 별도로 북한에 미리 준비해 둔 구호물품을 지난 달 17일~30일 평안남도를 비롯한 6개 도 16개 군의 6,610가구(2만 9,950명)에 분배했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사 "北 수해지원 30만 달러 배정", 2012.8.2

#### WFP, 北수해에 곡물 336톤 긴급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곡물 336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16개 군에 곡물 336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에 지원될 곡물은 주민 6만 명이 2주 동안 하루 400g을 배급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스카우 대변인은 설명함. 북한은 지난 달 30일 유엔에 수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한 식량과 연료 지원을 요청했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北수해에 곡물 336톤 긴급지원", 2012.8.4

## □ 유엔, 적십자... "北 수해 69만 달러 지원"

-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지원을 위해 69만여 달러를 배정함.
- 평양주재 유엔기구들은 7일 올해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남아 보건긴급기금'을 통해 13만 4천 달러를 배정했고, 유엔아동기금(UNICEF)도 25만 3천 달러를 배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국제적십자사(IFRC)도 지난 1일 북한 수해 복구 특별 지원 자금으로 약 30만 달러를 배정했음.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3개월 동안 10만 명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보건세트를 분배했으며, 유엔아동기금은 117만 정의 식수정화제와 양동이, 비누, 물통 등 식수와 위생 관련 물품들도 분배했음.
- 세계식량계획(WFP)은 는 23개 군 주민 10만 2천 명에게 14일 간 하루 400g을 배급할 수 있도록 옥수수 570톤도 지원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유엔, 적십자... "北 수해 69만 달러 지원", 2012.8.8)

## □ 유엔, "北 수재민에 1백만 달러 긴급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수재민을 위해 1백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함.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번 자금은 지난 16일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배정돼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0일 전함.
- 지원 내용을 보면 세계식량계획(WFP)에 65만 4천 달러를 배정해 흉수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만 달러를 배정해 식수와 위생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북한 수재민들에게 5천 톤의 식량을 지원해 23개 군 10만 2천 명에게 3천 톤을 분배하고, 나머지 2천 톤은 취로사업을 통해 도로와 독, 통신 설비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임.
-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자실은 지난 13일 대북 수해 지원 상황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수재민 지원에 총 470만 달러가 필요하며, 이 중 1백만 달러를 이미 확보했다”고 발표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유엔, "北 수재민에 1백만 달러 긴급 지원", 2012.8.21)

#### □ 유엔, "北 수해복구 90만 달러 추가 지원"

- 중앙긴급구호기금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22일 “최근 태풍과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미화로 90만 여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아모스 국장은 “이 기금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에 8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10만 달러를 배당했다”고 말함. 유엔인구기금은 “이번에 지원받는 80만 달러로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업을 수해 지역에서 펼칠 계획이며, 세계보건기구도 10만 달러로 수해 현장의 긴급 의료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이달 16일 북한 수재민을 위해 1백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유엔, "北 수해복구 90만 달러 추가 지원", 2012.8.23)

#### □ 국제적십자사, 北수재민 4만명 지원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6개 도 23개 군의 9,280가구, 3만 8,912명의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함.
- IFRC는 ‘북한 수해복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 자원봉사자 4천여 명과 함께 북한 내에 미리 비치해 둔 긴급 구호물품과 이달 초 집행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31만 달러를 활용해 비닐 박막, 이불, 물통, 수질정화제, 위생용품 등을 수재민에게 제공하고 응급처치와 위생교육을 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공건물과 도로 복구 계획은 세웠지만 임시천막 등에서 지내는 수재민들의 개인 주택 복구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한편 IFRC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한을 관통함에 따라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긴급 재해대책반’을 상시 대기시켜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전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사, 北수재민 4만명 지원", 2012.8.30)

#### 국제적십자, "北 태풍 피해 1만 명 추가 지원"

- 국제적십자사(IFRC)가 태풍 블라벤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만 1,6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9만 달러를 긴급 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이는 지난달 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0만 8천 달러의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집행한 데 뒤이은 추가적인 지원예산임.
- 이번에 추가된 지원예산은 피해 지역에서 위생·식수 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함경남북도, 양강도의 주민들에게 3개월간 임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박막, 이불, 주방기기,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이와 함께 IFRC는 미리 비치해둔 구호물품을 북한의 6개 도, 16개 군의 9천여 가구에 분배했음.
- 한편 RFA는 캐나다의 민간단체 ‘퍼스트스텝스(First Steps)’가 지난달 말 북한에 콩 100톤을 지원했다고 전함. 지원된 콩은 남포와 원산의 8만여 명의 어린이가 두 달 동안 하루 한 컵의 콩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양임.
- 북한에서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수해로 인해 전역에서 300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 또는 실종됐으며 8만7천280여 가구의 주택이 파괴·침수되고 29만8천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국제적십자, "北 태풍 피해 1만 명 추가 지원", 2012.9.15)

###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베트남, 수해입은 北에 쌀 5천 톤 제공

- 베트남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쌀 5천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보도함.
- 미국의 소리 방송은 7일 베트남 국영 라디오방송인 베트남의 소리를 인용해 “쯔언 쩐 상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 중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김영남 상임위

원장을 만나 이러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과 7월 태풍과 수해로 모두 57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 21만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함. 또 8천 6백여 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고, 6만 5천여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됐다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베트남, 수해 입은 北에 쌀 5천 톤 제공", 2012.8.7)

#### □ 독일 NGO, 北수해 31만 달러 지원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인 캅 아나무르는 이달 2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25만 유로(미화 31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황해남도 해주로 보냈다”고 밝힘.
- 캅 아나무르가 보낸 구호품에는 필수약품과 의료 기기, 분유, 영양강화식품이 포함돼 있으며 해주의 2개 병원에서 분배될 예정임. 번트 고켄 대표를 비롯한 캅 아나무르 직원들이 구호물품의 분배와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고 있음.
- 캅 아나무르는 2011년에도 5월과 7월 두 차례 평안남도 안주시와 황해남도 해주시에 1천 3백 톤의 쌀과 콩을 지원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독일 NGO, 北수해 31만 달러 지원", 2012.8.9)

#### □ 美 NGO, 대북 수해 지원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해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10일 “북한에 의약품과 이불, 임시천막 자재 등을 선박에 실어 곧 보낸다”며 “구호물자는 6주 후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의 또다른 구호단체인 머시 코어도 “북한 수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다른 구호단체들과 북한 홍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며,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함.

- 사마리탄스 퍼스, 머시 코어, 월드 비전,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 비정부기구들은 2010년에는 75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공동으로 북한 수해 지원을 해왔음.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美 NGO, 대북 수해 지원", 2012.8.11)

#### □ 러시아, "북에 밀가루 2천 톤 지원"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15일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2천 톤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다"며 "함경북도 당국자들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가 밀가루를 접수했다"고 전함.
- 청진항에는 지난 7월 16일에도 러시아가 보낸 670톤의 밀가루가 도착했다.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러시아, "북에 밀가루 2천 톤 지원"", 2012.8.16)

#### □ 유럽 구호단체들, 北 수해 지원 나서

- 유럽의 구호단체들이 최근 태풍과 홍수 등으로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섰다 미국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 이에 따르면 독일에 본부를 둔 '저먼 애그로 액션'은 평안북도 운산군, 향산군, 구장군의 730가구에 시멘트와 공구를 지원하기로 함. 1997년부터 대북지원을 해온 이 단체는 평양과 평안남도, 함경남도에 온실을 짓고 과수원과 다락밭을 조성하는 활동을 벌였음.
- 또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 더 칠드런'은 3,675개의 위생용품 세트와 950개의 가재도구 세트를 함경남도 단천시와 신포시, 영광군, 정평군, 흥원군, 신흥군 등에 분배할 예정임. 이 단체는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여왔음.
- 앞서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인 '캡 아나무르'도 이달 초 31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황해남도 해주로 보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셸터박스(Shelter Box)'는 북한 수재민에게 임시 천막 270개를 지원키로 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유럽 구호단체들, 北 수해 지원 나서", 2012.8.23)

#### □ 스위스, 北 수해복구에 21만 달러 지원

- 스위스가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비용으로 21만 달러를 책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북한 내 긴급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 20만 스위스 프랑(약 20만 9천 달러)을 배정했다고 지난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음.
- SDC는 이번 지원금으로 평안북도 구장군 지역의 무너진 가옥과 개인 텃밭을 복구하고 평안남도 안주시에서는 양수장을 복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임.
-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북한에 대한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주재 유엔기구들에 총 195만 달러를 배정해 수재민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질병치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스위스, 北 수해복구에 21만 달러 지원", 2012.8.24)

#### □ 독일 NGO, "북한에 씨감자 100만 달러 상당 지원"

- 독일의 민간단체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씨감자와 농기계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독일의 민간단체인 '저먼 에이드'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 사업 담당관은 30일 "지난 7월 말 새로운 2개년 사업을 시작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에서 북한에서 재배하기 적합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씨감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우마허 북한사업 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북한의 감자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자의 수확이 끝나면 쌀, 콩, 옥수수 등의 농사가 가능해 전체적인 식량 생산량의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 ‘저먼 에이드’는 “현재 6만 2천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 수해로 무너진 가옥들과 개인 텃밭을 복구하기 위해 평안북도 운산군과 향산군, 구장군의 730가구에 시멘트와 공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독일 NGO, "북한에 씨감자 100만 달러 상당 지원", 2012.8.31)

#### □ 유럽연합, "北 수해 복구에 25만 달러 긴급지원"

- 유럽연합이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20만 유로(미화 2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힘.
- 유럽연합 산하의 ‘인도적 구호 및 시민보호 위원회’는 지난 5일 구호자금 배분 현황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지역 10개 나라에 지원한 5천2백만 유로(미화 6천5백만 달러) 가운데 북한에 20만 유로(미화 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위원회는 “이 긴급구호 지원금은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이 해마다 내는 비용 가운데 일부로 버마와 필리핀, 북한 등 홍수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위해 쓰여진다”고 밝힘.
- 위원회 공보 담당관은 “북한의 경우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큰물 피해 직후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산하기구, 그리고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구호단체에 전달됐다”고 말함.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유럽연합, "北 수해 복구에 25만 달러 긴급지원", 2012.9.5)

#### □ 캐나다·아일랜드, 北에 긴급 식량지원

- 캐나다와 아일랜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총 325만 달러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300만 달러, 아일랜드는 20만 유로(25만5천 달러)를 각각 WFP의 대북 식량 구호 사업에 지원했음. WFP는 아일랜드의 지원금으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3만3천 명에게 1개월 동안 영양 지원을 할 계획임.

- WFP의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는 캐나다와 아일랜드 외에도 러시아, 스위스,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5천300만 달러가 모였음.
- WFP는 내년 6월까지 북한의 82개 군에서 여성과 어린이 239만 명에게 12만3천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캐나다·아일랜드, 北에 긴급 식량지원", 2012.9.11)

#### □ 캐나다 NGO, "北에 지원한 콩 100톤 분배확인"

-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First Steps)가 지난달 말 북한에 콩 100톤을 지원하고 분배상황을 점검했음.
- 캐나다의 대북지원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와 후원자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 동안 평안남도 남포와 강원도 원산의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등을 방문해 구호 식량의 분배 상황을 점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함.
- 수잔 리치 대표는 "지난달 배편으로 북한으로 보낸 콩 100톤과 건조 채소국, 말린 사과 등 식량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다"며 "지원된 콩 100톤은 남포와 원산 지역 어린이 8만여 명이 두 달 동안 하루 한 컵의 콩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함.
- 퍼스트 스텝스는 2006년부터 비타민, 엽산, 철 등 5가지 영양소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빈혈예방용 복합미량영양소를 1년에 약 300만 포를 북한에 보내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제공해 왔음.
- 퍼스트스텝스가 지난 12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콩우유 기계는 100여 대로 남포와 원산 등지에 있는 보육원과 학교 약 8만 명의 어린이에게 매일 한 컵의 콩우유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캐나다 NGO, "北에 지원한 콩 100톤 분배확인"", 2012.9.15)

## □ 英지원단체, 北나선 빵 공장 기계 지원

- 영국 대북지원단체 대표가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북한의 나선 지역을 방문해 빵 공장의 기계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 대표인 조지 리 선교사는 나선 지역 빵 공장의 냉장고와 냉동고 등 낡은 기계를 교체하고 4개 도시의 빵 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가 RFA에 밝힘.
- 북녘어린이사랑은 매일 평양 3천개, 향산(평북) 5천개, 나선 3천개, 사리원 5천개 등 4개 지역 공장에서 총 1만6천개의 빵을 생산해 북한 어린이 1만5천여명의 점심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 단체는 북중 국경지역에 떠도는 탈북 고아를 위한 시설로 다음달 중국 훈춘에 고아원을 세우고 연길에도 같은 시설을 건립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英지원단체, 北나선 빵 공장 기계 지원", 2012.9.18)

## □ 印尼, 北에 200만 달러어치 식량 지원

-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 등은 아궁 락소노 인도네시아 복지조정장관이 전날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리정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고 전함.
- 락소노 장관은 “지원은 200만 달러 상당의 팜유와 비스킷류, 다른 식품 재료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함.
-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답변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식량을 전달하는 방법과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印尼, 北에 200만 달러어치 식량 지원", 2012.9.20)

## □ 영국 NGO, "北 수재민에 긴급구호품 추가 지원"

- 영국의 민간단체가 태풍과 홍수로 집을 잃은 북한 수재민의 추가 긴급구호를 위해 현장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힘.
-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 자선단체 '셸터박스' 미국지부의 데이비드 에비 지원국장은 19일 "수해 피해로 집을 잃은 북한 수재민에게 텐트를 비롯한 긴급구호품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셸터박스'는 국제 민간단체인 로터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초 북한 이재민의 임시거처로 사용할 텐트 등 대형구호상자 270개를 북한에 지원했음.
- 2000년부터 홍수와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당한 나라를 지원해 온 셸터박스는 2007년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에 구호상자 200개를 전달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자료: <http://www.nocutnewsnews.co.kr/> (노컷뉴스, "영국 NGO, "北 수재민에 긴급구호품 추가 지원", 2012.9.20

## □ 美단체, 내년 2월까지 北어린이에 영양쌀 지원

- 미국의 어린이구호단체인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가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35만 개의 영양쌀을 북한 어린이에게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영양쌀 한 끼분에 드는 비용은 22센트로 1년간 지원액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쌀은 쌀에 콩과 채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30여 가지 영양소를 첨가한 것으로 이 쌀을 먹으면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2~3개월 내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
- 1987년 설립된 FMSC는 영양쌀을 만들어 가난한 나라의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식량을 지원해왔음. 도네이토 대변인은 이 단체가 2007년부터 북한을 돕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3개 구호단체가 북한까지 영양쌀을 가져가 분배하고 있다고 설명함.
- FMSC의 영양쌀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인 '코리아친선네트워크(Korean Friend Network)'와 미국의 민간단체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등을 통해 북

한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평양의 어린이와 장애인 시설에 전달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단체, 내년 2월까지 北어린이에 영양쌀 지원", 2012.9.29)

#### □ 러시아, 北에 밀가루 2천 톤 추가 지원

- 러시아가 태풍 등으로 수해를 당한 북한에 밀가루 2천 톤을 추가 지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밀가루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으며 함북도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 등이 구호물자를 수령했다고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바체슬라프 추피코프가 밝힘.
- 추피코프 총영사는 올 7월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선박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약 6,200톤의 밀가루를 극동 나홋카항에서 청진항으로 실어날랐다고 설명함. 밀가루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제과공장들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러시아, 北에 밀가루 2천 톤 추가 지원", 2012.10.2)

#### □ 中, 유엔 통한 北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

-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6일 WF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FP는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550톤의 옥수수를 사들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 식품으로 가공해서 4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한 달간 제공할 예정임.
- WFP는 올해 7월부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82개 군에서 239만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북한에 12만3천톤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中, 유엔 통한 北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 2012.10.16)

### 3. 북중 교역 동향

####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0	15,636	2,469	900	4,375	78	23,458
11	0	697	21,109	119	4,171	19	26,115
12	0	651	7,417	120	3,927	33	12,148
2011.1-12	1	45,879	55,048	1,535	50,298	13,436	166,197
2012. 1	0	764	326	0	1,850	633	3,573
2	0	117	653	29	1,705	398	2,902
3	102	800	2342	145	7,730	156	11,275
4	0	7,284	2,412	0	6,376	10,217	26,289
5	0	1,276	3,376	3	6,086	680	11,421
6	0	1,250	2,200	0	4,014	395	7,859
7	0	1,463	2,221	74	3,367	1,029	8,154
8	0	1,797	3,284	0	6,112	480	11,673
9	240	2,238	5,100	76	7,611	691	15,956
10							
11							
12							
2012.1-12	342	16,989	21,914	327	44,851	14,679	99,102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물 수한의 대중 곡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0	41,380	4,707	2,500	10,662	120	59,369
11	0	1,946	29,800	184	10,216	30	42,176
12	0	1,953	12,440	0	9,701	55	24,149
2011.1-12	1	135,751	92,242	3,302	124,963	20,172	376,431
2012. 1	0	2,309	615	0	4,545	910	8,379
2	0	401	1,241	50	4,222	620	6,534
3	200	2,226	4,172	230	19,193	222	26,263
4	0	18,433	4,480	0	15,654	12,411	50,978
5	0	3,613	6,025	6	15,138	1,006	25,788
6	0	3,355	3,995	0	9,829	547	17,726
7	0	4,290	4,360	114	8,189	1,534	18,487
8	0	4,982	6,144	0	15,333	670	27,129
9	400	6,107	9,131	117	18,972	1,003	35,730
10							
11							
12							
2012.1-12	600	45,716	40,163	517	111,075	18,923	216,99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9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35,730톤으로 8월의 27,129톤보다 32% 증가하였으며 금년 들어 월 기준으로는 4월 다음으로 많음.
  - 이는 지난해 9월의 곡물 수입량 34,202톤보다 약간 증가한 것임.
  - 금년 들어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16,994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50,737톤과 비교할 때 13.5% 감소하였음. 곡물 총 수입액에 있어서는 지난해 10,448만 달러에서 금년에는 9,910만 달러로 5.1% 감소함.
  - 2012년 9월말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21.1%, 쌀 18.5%, 밀가루 51.2%, 콩 8.7%임. 2011년 같은 기간의 경우 곡종별 수입 비중은 옥수수 36.1% 쌀 18.1%, 밀가루 37.6%, 콩 8.0%였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옥수수의 수입 비중이 대폭 감소한 대신 밀가루의 수입 비중은 대폭 증가함.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옥수수의 수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56.7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416.7달러와 비교하면 9.6% 상승함.
  - 금년 9월까지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수입 단가는 옥수수 371.6달러, 쌀 545.6달러, 밀가루 403.8달러, 콩 775.7달러였음. 2011년 같은 기간의 곡종별 톤당 수입단가는 옥수수 319.4달러, 쌀 531.0달러, 밀가루 400.8달러, 콩 666.4달러였음. 지난해와 비교하면 쌀(2.7%)과 밀가루(0.7%)의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옥수수(16.3%)와 콩(16.4%) 가격은 크게 상승함. 이는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동향과 일치함.
  
- 2012년 10월 29일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12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90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같은 날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11월물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561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밀 12월 선물가격은 315달러임.
  -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8월 이후 하락 추세이나 옥수수와 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34	0	0	2	136
11	0	0	6	0	6
12	3	0	0	2	5
2011.1-12	94,188	4	7	1,684	95,883
2012. 1	0	0	0	2,533	2,533
2	0	0	0	246	2,779
3	0	5	0	0	5
4	3,507	5	11	10	3,533
5	15,233	0	62	92	15,387
6	32,198	35	0	3,635	35,868
7	7,267	0	15	95	7,377
8	4,351	0	0	0	4,351
9	0	0	0	45	45
10					
11					
12					
2012.1-12	62,559	45	88	6,656	69,348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300	0	0	5	305
11	0	0	5	0	5
12	11	0	0	3	14
2011,1-12	350,641	40	7	4,348	355,036
2012. 1	0	0	0	6,089	6,089
2	0	0	0	401	401
3	0	40	0	0	40
4	15,160	40	5	13	15,218
5	69,208	0	56	84	69,348
6	114,838	160	0	7,778	122,776
7	16,338	0	14	218	16,570
8	21,604	0	0	0	21,604
9	0	0	0	106	106
10					
11					
12					
2012,1-12	237,148	240	75	14,689	252,152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9월 들어 북한은 중국에서 106톤의 화학비료만을 수입하여 8월에 비해 수입량이 대폭 감소함.
  - 금년 9월말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52,15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4,713톤과 비교할 때 28.9% 감소하였음.
  - 금년 9월까지 수입한 비료는 요소 44,186톤, 유안 192,946톤으로 두 가지 비료가 전체 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0%임.
  
- 금년 9월까지 수입한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톤당 21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2달러에 비해 14% 상승하였음.
  - 금년 9월까지 수입한 요소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45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3달러와 비교할 때 3% 가량 하락함.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비료를 수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금년은 가뭄, 태풍, 홍수 등 이상 기상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료 등 농자재의 공급 상황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감수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흥남화학기업연합소의 주체비료 생산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인 알려져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유기농업의 정보화의 기본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김 광 길

- 농업을 정보화하는 것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농업의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과 학기술에 기초한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함.
- 유기농업을 정보화한다는 것은 컴퓨터기술, 정보통신기술, 자료기지기술 등 정보 기술에 기초하여 유기농업생산 및 생산물의 실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 봉사함으로써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유기농업생산의 정보화는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농업생산환경의 정보화임.
  - 이는 정보수감 및 처리시설과 이의 발전성과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게 농업생산이 적지 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가짐.
- 유기농업생산의 정보화는 유기농업생산기술의 정보화임.
  - 유기농업생산기술의 정보화는 농작물의 품종육종과 재배기술, 비료주기기술, 물 관리기술, 병해충예찰 및 구제대책, 집짐승기르기 기술, 수의방역기술 등에 대한 정보화임.
- 유기농업생산의 정보화는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원료와 자재보장에 대한 정보화임.
  -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보장을 떠나서 농업생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종자, 비료, 농약을 비롯한 원료, 자재의 정상적인 보장은 농업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줌. 때문에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원료와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2년 제2호(누계 460호), 2012.

자재보장에 대한 정보화는 유기농업생산의 정보화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임.

- 유기농업의 정보화는 농업경영활동에 대한 정보화를 내용으로 함.
  - 경영활동의 정보화가 실현되면 농업기업소들은 유기농업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정보중심으로부터 임의의 시각에 신속정확히 받을수 있게 되며 필요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됨.
  - 유기농업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유기농업의 정보화 실현에 필요한 유기농업정보기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함.
- 유기농업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일군과 농업근로자에게 제때에 정확히 보장해주자는데 있음. 객관적이며 적시적인 농업정보가 보장되어야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세계유기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음.
  - 유기농업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업생산단위별로 유기농업 정보체계를 세워야 함.
  - 유기농업 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보자료수집 및 처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작물 재배와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기록처리해야 함. 또한 자료기지 구축사업을 잘하고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야 하며, 자체로 프로그램개발단위를 잘 꾸리고 프로그램 생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함.

## 간석지건설사업은 국토를 넓히고 후대에게 더욱 살기좋은 조국강토를 물려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

정 성 애

- 간석지 건설사업은 무엇보다 먼저 국토를 넓히고 나라의 면모를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임.
- 국토라는 개념은 나라의 땅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부인 부침땅, 강하천, 산림, 도로, 간석지 등을 다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포함됨. 영토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자원이며 민족국가수립의 물질적기초임.
-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국토는 산업토지와 농업토지로 이용됨. 그러므로 산업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농업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됨. 사회가 발전할수록 농업토지가 산업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따라서 농업용 토지의 확대는 국토이용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나라의 인구증가와 농업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농업에 이용되는 국토면적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침땅을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함.
- 간석지 건설은 농업용 토지를 늘리게 함. 뚝을 쌓고 밀물을 막으면 그 땅은 국토의 지면으로 되며 지면으로 된 조건에서는 염기를 빼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로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음.
- 간석지 건설사업은 후대에 더욱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물려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임.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농경지로 만들어놓으면 후

\* 경제연구, 2012년 제3호(누계 156호), 2012.

대에게 도움이 될 것임.

- 간석지건설은 나라의 인구가 늘어남 현대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게 될 내일의 요구에 맞게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풀고 우리세대 뿐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중요한 사업임.
- 인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임. 인민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려야 함. 부침땅 면적을 더 늘려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해야 함.
  - 간석지를 개간하고 간석지에서 자라는 논벼품종을 심으면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사료문제도 해결하여 축산업과 양어업도 발전시켜 인민에게 고기를 보장할 수 있게 됨.
-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함.

E02-2012-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3호

찍 은 날	2012. 10	펴낸날	2012. 10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a href="http://www.krei.re.kr">http://www.krei.re.kr</a>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